

원·달러 환율 16년 만에 최고치 접근

‘1500원 공포’… 정부 개입 분수령

관세 변수 해소에도 고환율 지속
美셧다운·금리동결 전망 등 영향
구윤철 부총리 “가용 수단 총동원”
국민연금·수출업체 등 긴밀 논의

원·달러 환율이 통상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이에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으로만 간간히 대응할지, 아니면 조만간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은다.

큰 폭의 원화가치 하락은 원자재 수입물가의 상승을 불러온다. 이는 소비자의 구매력 약화 및 기업의 원자재 구매 부담 등으로 이어지고, 국내 물가상승을 부채질하는 요인인 탓에 고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단은 없는 노릇이다.

17일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0원 오른 1458.0원에 주간(晝間)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13일 수치인 1483.5원에 바짝 다가간 상황이다. 환율은 불과 2개월 전인 9월17일(1381.00원)과 비교해 77원(5.57%)이나 올랐다.

이례적이라는 1400원대는 백악관발 관세정책의 일시적 영향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한·미 간 협상이 타결되면 원화값이 제 자리를 찾아갈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관측이 현재까진 들어맞지 않고 있다. 양국 정상은 지난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때 만나 타결을 선언했다. 이후 지난 주말



코스피는 전 거래일(4011.57)보다 77.68포인트(1.94%) 오른 4089.25에 마감한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증가가 표시되어 있다.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897.90)보다 4.77포인트(0.53%) 상승한 902.67,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증가(1457.0)보다 1.0원 오른 1458.0원에 주간 거래를 마무리했다.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까지 일반에 공개됐으나 환율은 하락이 아닌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들어 1450원 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흐름인데, 연내 1500원대 진입도 이상할 게 없다는 견해까지 나온다.

그러나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한시적 업무정지)으로 인한 유동성 약화가 급등의 주 원인으로 꼽힌다. 또 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도 달러 강세를 부추긴 요인이다.

외환당국은 지난 14일 구두개입에 나

섰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70원을 상회하는 등 외환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는 경우 가용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국민연금을 언급한 부분은 시장의 관심을 끈다. 구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은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연금과 수출업체 등 주요 수급주체들과 긴밀히 논의해, 환율안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신문 ‘아파트의 미학 休&休’ 2025 조경 우수 아파트 시상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메트로 아파트 조경 대상 휴애티(休&休)’의 주인공을 선정합니다.



지난해 ‘조경혁신대상’을 수상한 GS건설 ‘복수원 자이렉스비아’.

올해 메트로신문 ‘아파트의 미학 휴애티’에 소개된 아파트 가운데 ▲조경혁신상 ▲친환경단지상 ▲스

마트환경상 ▲미래가치대상 ▲테마조경상 ▲브랜딩혁신상 ▲커뮤니티혁신상 등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조경, 스마트 첨단 기술의 융복합 구현, 녹지공간 등 아름답고, 편안한 아파트단지 선정을 통해 건설사와 입주민을 응원하기 위한 조경대상입니다.

‘2025 metro 아파트 조경대상 휴애티’는 올해 소개된 30여곳을 대상으로 대학 교수 등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1차,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시공사는 물론 아파트 주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심사방식 : 소개 아파트단지 대상으로 심사위원 합의로 선정
- ◆수 상 명 : 조경혁신상 미래가치상 스마트환경상 등
- ◆수상작 선정 : 11월 27일

metro[®]

서울 부동산 거래 ‘셧다운’ 수도권 비규제 지역 ‘윙윙’

10·15 대책 시행 한달

지방 집값 상승 등 ‘풍선효과’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한달이 지난 가운데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투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초강수에 거래는 급감했고, 수도권 상승폭은 다소 둔화했지만 규제를 피한 지역은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 지난 10월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올라 전주(0.07%) 대비 상승폭이 둔화됐다. 수도권(0.13%→0.11%)과 서울(0.19%→0.17%) 모두 상승폭이 줄었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주간 기준으로 10·15 대책 이후 ▲10월20일 0.50% ↑ ▲10월27일 0.23% ↑ ▲11월3일 0.19% ↑ ▲11월10일 0.17% ↑ 등 4주 연속 상승폭

이 둔화됐다.

거래는 뚝 끊겼다. 직방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전후 20일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은 43% 감소했다.

이와 함께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광범위하게 지정했지만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지방도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한 달 만에 서울과 수도권을 ‘거래 절벽’ 위에 집값만 날뛰는 시장”으로 만들어버렸다”며 “3중 규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고강도 대출 규제까지 한꺼번에 밀어붙이자 시장은 사실상 셧다운(업무정지) 상태로 10월 초까지만 해도 2000~3000건을 넘기던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대책 발표 이후 90% 가까이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D램 공급 불안, HDD·SSD까지 번졌다

AI 열풍에 글로벌 스토리지 경고등 내년 저장장치 전반 공급부족 우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D램을 넘어 저장장치 전반의 공급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공지능(AI) 서버 중심의 스토리지 수요가 기존 메모리 사이클을 상회하는 속도로 증가하면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와 낸드플래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컨트롤러 등 주요 품목에서 가격 상승 현상이 동시에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실리콘밸리와 대만 에이테이터 경영진이 연이어 시장 경고를 내놓으면서 내년부터 공급 불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AI 데이터센터 증설은 스토리지 수요를 구조적으로 바꾸고 있다. 대규모 AI 학습·추론 환경을 운영하기 위해 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 클라우드·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이 최신 규격인 NVMe SSD 뿐 아니라 HDD 투자 역시 동시에 확대하고 있으며 장기 원천데이터 저장용 HDD 발주량도 빠르게 늘고 있다. 실리콘밸리 최고경영자 월리스 쿠는 지난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AI 서버와 데이터센터향 수요가 상당한 생산능력을 선점하고 있다”며 “HDD와 낸드플래시, HBM 등 일부 제품군에서 2026년도에 공급이 타이트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급 압박은 부품·모듈 단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HDD는 플래터와 모터 등 핵심 부품 리드타임이 길어지며 생산 대응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이고 낸드플래시는 감산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량 제품 수요가 늘어 공급 조정이 쉽지 않다는 평가다. SSD 컨트롤러 역시 성숙공정 기반 파운드리 공급 여건이 부족해지면서 일부 고객사의 내년·후년 물량 소화가 부담스러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만 에이테이터사 이먼 첸 회장은 지난달 간담회에서 “AI 데이터센터가 HDD와 SSD, 낸드를 동시에 흡수하는 것은 업계에 오래 경험한 입장에서 드문 흐름”이라며 “메모리 전반에서 공급이 빠듯해지는 조짐이 있다”고 말했다.

HBM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D램 전체 웨이퍼 배정 구조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점 역시 꾸준히 변수로 지목되고 있다. 제조사들이 동일한 D램웨이퍼에서 HBM용 투입 비중을 높일 경우 범용 D램 공급 여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품목별 병목 지점은 다르지만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가 공통적인 수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저장장치 전반의 가격 변동성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정희준 기자 nauta@

메트로 한줄뉴스



▲정청래 “‘당원 1인 1표’ 도입 묻는 전 당원 투표 실시”
/사진 뉴시스
▲외교부 “핵잠 운용, 특정국 대상 아니다”… 中 반발 차단 나서

▲한동훈 “나는 대선까지 나갔던 사람…왜 불출마 선언 해야 하나”
▲이준석 “전과 4개 대통령이 공무원 범죄자 취급… 중증 내로남불”

▲‘메기’ 되겠다는 조국… 호남 찾아 “민주당 안방 정치 바꾸겠다”
▲한동훈 “아무 말 대잔치 말고 민주당 대표로 나와라”… 박병계에 공개 토론 제안

삼성D·LGD, 제품 다변화 주력… 글로벌시장 입지 다진다

2034년 車디스플레이 시장 29조

삼성디스플레이

작년 글로벌시장 점유율 55.9%
차량용 OLED브랜드 ‘드라이브’

LG디스플레이

3분기 누적 매출액 1.6조 달성
‘탠덤 OLED’ 상용화 격차 벌려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가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와 업황 침체에 직면한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으로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차량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품군 다변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는 모습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프래지던스리서치는 글로벌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가 매년 연평균 4.5%씩 성장해 오는 2034년 202억 5000만달러(한화 약 2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완성차 중심 산업 구조가 배터



LG디스플레이 파주 사업장 전경.

/LG디스플레이

리·디스플레이·센서·소프트웨어로 재편되면서 차량용 디스플레이의 성장 잠재력도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차량용 OLED 출하량과 매출에서 시장 1위를 유지 중이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는 지난해 글로벌 차량용 OLED 시장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점유율이 55.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출하량 기준으로는 164만대, 매출로는 4억 9200만달러(약 7000억원)를 기록했다.

LG디스플레이는 올해 1~3분기 누적

차량용 디스플레이 매출로 1조 6249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전체 매출의 8.7% 수준으로 비중이 크진 않지만 분기마다 약 5000억원대 매출을 꾸준히 내며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디스플레이 업계는 차량용 OLED 디스플레이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은 지난 6월 기흥 삼성디스플레이리서치(SDR)에서 취임 첫 임직원 소통행사를 통해 차량용 OLED를 고객과 제품 다변화에 주력하자고 강조한 바 있다.

LG디스플레이는 또한 지난 4월 열린 ‘OLED&XR 코리아 2025’ 행사에서 전체 차량용 디스플레이 매출액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차량용 디스플레이 매출 중 OLED가 차지하는 비중은 25%였는데 오는 2028년 40%, 2030년 50%까지 상승시키겠다는 포부다.

업계의 기술 경쟁도 가열되는 모습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차량용 OLED 브랜드 ‘드라이브’를 선보였다. 하만과의 협업을 통해 차량용 OLED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완성차 제조사

별 맞춤형 디스플레이 설루션 제시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대시보드 전면을 가로지르는 ‘필러 투 필러’ OLED를 통해 수주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탠덤 OLED’를 상용화해 기술 격차를 벌리고 있다. 플라스틱OLED와 어드밴스드 썬(ATO) 등 프리미엄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시대를 겨냥한 초대형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지속 선보인다는 전략이다. 실제 메르세데스-벤츠는 S클래스시리즈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제어 장치인 센터페시아에 LG디스플레이가 만든 플라스틱OLED를 탑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OLED는 SDV의 핵심 인터페이스로 자리매김하며 자동차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차량용 OLED는 디스플레이 기업에 지속 가능한 수익성을 제공하는 전략적 제품군으로 부상 중”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이랜드, ‘블프’ 앞두고 물류센터 화재 ‘비상’ D램 가격 급등… 스마트폰 원가압박 상승

‘연중 최대 성수기’ 천안물류센터 마비
무신사 등 이랜드 상품주문 어려워
“재고 소실… 대체물류 확보에 총력”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이랜드패션에 악재가 닥쳤다. 아시아 최대 규모인 천안 패션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물류망이 마비되면서 연중 최대 성수기인 4분기에 피해를 입은 건 물론 이랜드 브랜드가 입점한 주요 패션 플랫폼 연말 행사에도 비상이 걸렸다.

17일 유통업계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이어진 천안 패션물류센터 화재로 인해 이랜드패션은 의류 이월 재고 및 가을·겨울(FW) 상품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천안 패션물류센터는 패션 물류를 처리하는 물류센터 중 국내 최대 규모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19만 3210㎡(약 5만 8000평), 축구장 27개 넓이에 달하는 초대형 물류 거점으로 스파오, 뉴발란스, 후아유 등 10개 브랜드 상품

1100만 점이 보관돼 있었다. 구조물을 중장비로 해체하며 불씨를 정리해야 하는 만큼 완전 진화까지는 1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화재는 주요 패션 플랫폼이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시작한 시점에 발생해 더욱 뼈아프다. 무신사는 이달 16일, 지그재그, 에이블리, 4910은 이달 17일부터 대규모 할인 행사를 시작했지만 이랜드 브랜드 상품은 물류 문제로 인해 주문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이 날 오후 1시 기준 무신사 스토어에선 이랜드의 SPA 브랜드 스파오 제품 1453개 중 99.31%에 달하는 1443개 제품이 품절 처리돼 있어 주문이 되지 않았다. 뉴발란스도 등록된 제품 611개 중 39.6%인 242개가 모두 품절 상태다. 무신사 측은 공지와 함께 “현재 무신사로지스틱스를 통해 별도로 보관·배송되는 일부 풀필먼트 상품만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패션업계 특성상 할인 행사가 몰려

있고, 고단가 아우터 등이 판매되는 4분기에 실적이 집중된다는 점 역시 악재다. 지난해 이랜드그룹 지주사인 이랜드월드의 연결 기준 실적을 보면 4분기 매출액은 1조 6187억원, 영업이익은 1176억원으로 분기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1분기에서 3분기까지 평균 매출이 1조 2777억원, 영업이익 512억원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4분기가 한 해 실적을 좌우하는 상황이다.

패션 부문은 이랜드그룹의 핵심 사업이기도 하다. 이랜드월드의 패션 부문은 올해 3분기 누적 매출 4조 9443억 중 51%에 달하는 2조 5311억원을 기록할 정도로 그룹 내 비중이 절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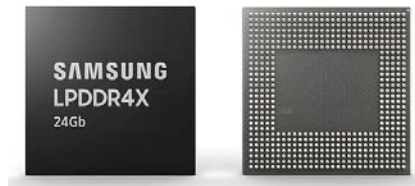
이랜드그룹은 비상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랜드 관계자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물류인프라와 의류 재고가 소실되는 피해가 있었다”며 “현재 국과수에서 CCTV를 확보해 화재 원인을 규명 중”이라고 밝혔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4분기 D램 가격 상승률 23% 예상

삼성, 내년 출시되는 갤럭시S26
전작 대비 약 20% 상승 불가피할 듯

인공지능(AI) 투자 확산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폭증하면서 D램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D램 가격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모바일용 저전력 D램 가격 역시 덩달아 오름세를 보이자, 스마트폰 업계는 부품 원가 부담 속에서 소비자 가격 인상을 억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장조사업체 트랜드포스는 4분기 D램 가격 상승률을 전분기 대비 18~23%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모바일용 저전력 D램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급형에 들어가는 LPDDR4와 첨단 폰에 내장되는 LPDDR5의 기존 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38~43%일 것으로 예상했다. 공급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내년 초 신제품 출시를 앞둔 스마트폰 업체의 주문이 몰린 것이 가격 강세를 부추긴 요인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 ‘24Gb LPDDR4X D램’.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갤럭시S23 시리즈부터 갤럭시S25까지 기본형(256GB) 모델 가격을 115만 5000원으로 유지해왔다. 하지만 내년 초 출시 예정인 갤럭시S26은 전작 대비 약 20% 안팎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 체감하는 가격 상승 폭은 더욱 클 수 있어 구매를 부담스러워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따른다.

S26시리즈는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인 ‘엑시노스2600’을 탑재해 원가를 절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다만 일부 모델은 퀄컴 칩을 병행 탑재할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이 경우 원가 절감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차현정 기자 hyeon@

전국 소매판매 13개 분기만에 ‘증가’ 전환

데이터처, 3분기 지역경제동향
17개 주요 시·도 중 11곳서 늘어

올해 3분기 전국 소매판매가 13개 분기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17개 주요 시·도가운데 11개 시도에서 소비가 늘어났다.

국가데이터처가 17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7~9월 기간 전국 소매판매는 지난해 동분기에 비해 1.5% 늘었다.

그간 소매판매는 2022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12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한 바 있다. 올해 2분기에 보합

(0.0%)을 기록한 뒤 3분기에 증가로 돌아선 것.

11개 시도에서 소매판매가 늘었다. 특히 승용차·연료소매점 등의 판매가 늘면서 세종(8.8%), 인천(5.5%), 대구(5.3%) 등에서 소매판매가 크게 증가했다. 반면 서울(-2.7%), 제주(-1.3%), 전북(-1.0%) 등 6개 지역은 감소했다. 면세점, 슈퍼마켓·잡화점·편의점, 대형마트 등의 판매가 줄었다.

정선경 국가데이터처 소득통계과장은 “3분기에는 하이브리드차 등 신차 출시 영향으로 승용차 판매가 늘었고, 7월부터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소매

판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쿠폰이 11월까지 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4분기 소매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소매판매 외에도 광공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 건설수주 등 대부분의 경제 지표가 플러스를 기록했다.

내수 경기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전년동분기 대비 26.5% 증가하며 2분기(-5.4%) 부진을 씻었다. 17개 시도 중 9곳에서 건설수주가 증가했다. 충북(104.4%), 서울(68.1%), 부산(45.9%)은 공장·창고, 주택 등의 수주가 늘면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국민연금, 환율 상승시 ‘환헤지’ 할 수도

>> 1면 ‘1500원 공포…’서 계속

국민연금은 환율이 일정 수준에 이를 시 보유한 해외 자산의 일부를 매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환헤지(위험회피)를 단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의 달러 실수요가 감소하고 환율이 하방압력을 받게 된다.

KB국민은행의 이민혁 연구원은 “환율이 1480원 부근으로 추정되는 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 레벨에 근접한 것은 달러 롱(매수) 심리를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한은행의 소재용 이코노미스트는 “소위 서학개미가 국민연금과 맞먹을 정도로 덩치가 커지며 외환시장의 수급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 유입을 넘어서며 수급상 달러 강제 우위를 고착화하는 모습”이라며 “어쩌면 1400원대에 익숙해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외 증권가에서는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더라도 이는 한국의 국가신용도와는 관련이 없다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투자자, 脫한국… 기업, 환전보류… 달러 등 외환흐름 경색

1400원대 고환율 지속

해외투자·관세협상 등 복합 작용
일각선 韓 경제 구조적 문제 지적
“외환보유고 자산 다양화 해야”

“최근 거주자들의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70원을 웃돌았다. 원화 가치 하락이 계속되면 가용 수단을 적극 활용해 대처해야 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4일 시장상황점검회의)

올해 연간으로 평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처음으로 14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악달러’ 시대에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누가 원화를 갚은 수령으로 몰아넣는 것일까. 시장 전문가들은 환율이 치솟자 이례적인 현상을 ‘서학개미’(해외 주식투자자)와 외국인 매도세에서 찾는다. 하지만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나타난 기업들의 달러 보유 심리 확대, 완화적 통화정책 속 오랫동안 이어진 한·미 금리 역전, 재정 확장 정책에 따른 막대한 유동성 등이 원화 가치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 서학개미 vs 구조적 수급전환

외환 당국은 ‘서학개미’를 주목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 인터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보유중인 달러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 /뉴스시스

에서 “최근 환율 움직임은 대부분 국내 거주자의 해외투자에 좌우됐다”고 했다. 미국 주식을 끌어담는 서학개미의 달러 수요가 환율을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내국인 해외증권투자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시장에는 환율 상승압력에 대한 기대가 자리잡고 있다”며 “이때 수출 업체들은 단기 환율 고점에서 달러를 매도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달러를 보유하려는 유인이 확대된다”고 했다.

반면, 구조적 요인을 꼽는 전문가들도 있다. 완화적 통화정책 속에 나타난 한미 금리 역전과 재정 확장 정책 등도 원화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얘기다.

특히, 관세 인하를 위해 약속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는 기업의 달러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피할 수 없는 원화 약세 요인이다.

외환시장 한 관계자는 “글로벌 관세 리스크, 금리 인하 지연,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이어지자 해외 매출을 올린 기업들이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보유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면서 “기업 공간에 달러가 묶여 있는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국민연금·보험사·연기금 등의 기관들은 수익률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헤지 비용을 줄이고 있다.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투자 잔액은 연초대비 수백억달러가 늘었고, 보험사들은 선제적인 해외채권 교체 매대로 달러 수요를 키운 상태다.

이영곤 토스증권 투자전략센터장은 “환율급등을 서학개미들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외국인·기업·기관 등 주요 주체들

의 자금 흐름이 동시에 달러 쪽으로 기운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 경제 체질개선과 외환보유 자산 다양화에 답

17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대비 1.0원 오른(원화 가치 하락) 1458.0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1500원대를 향해 치솟던 환율이 안정세를 보인 일차적 원인은 외환·금융 당국이 ‘국민연금 동원’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구두 개입에 나선 영향이다.

앞서 공개된 미국과의 조인트 팩트시트도 안정세에 힘을 보탰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어떤 경우에도 연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액수를 조달할 일은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투자 이행 과정에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 미국에 조달 금액·시점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안전장치’도 포함됐다.

하지만 환율이 장기적으로 안정화된

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경제 체질 개선 등과 같은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이택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짚은 단기 대규모 외환거래의 조정 등을 통해 원화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는 등의 수단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의 지속성장 기반 확보 노력 등을 통해 경제 펀더멘털을 강화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외환·금융 시장의 안정화 기반을 다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반도체·자동차·조선·철강 등 전략산업의 경쟁력은 더 높이고,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가 산업 전반에 대한 체질 강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으로 집중된 수출을 분산시켜 달러가 들어오는 통로를 다변화하고, 중앙은행이 금을 매입해 외환보유고 자산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美 ‘번스-톨레프슨’ 장벽 균열 韓, 1600조 시장 진입 기대감

(해군 함정 해외건조 금지 법안)

정기선, 쇄빙선 예외 사례 공식언급
美 의회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논의
“韓, 인력 양성 등 선제적 대응 나서야”

미국이 금기시해 온 해안경비대 함정의 해외 건조가 처음으로 허용되면서 미 함정 해외 건조 규제 완화 기대에 불이 붙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외 승인과 미 의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 개정안이 맞물리며 규제 완화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전날 민관 합동회의에서 미국이 이미 해외 조선소 건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전례가 있다고 짚었다. 지난해 미국·캐나다·핀란드가 체결한 ‘ICE Pact(북극 협력 협정)’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날 미 해안경비대 쇄빙선 4척을 핀란드 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승인한 조치다.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금지 조항을 우회한 첫 사례다.

미국의 ‘번스-톨레프슨법’은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금지하고 해안경비대 함정도 연방 예산으로는 외국에서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한다. 그럼에도 쇄빙선 전력 공백이 심각해지자 쇄빙선 강국인 핀란드 조선소를 활용하는 것이 국가안보상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입법 차원의 변화도 진행 중이다. 공화당 상원의원 마이크 리존 커티스가 발의한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ENRA)’

과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동맹국 조선소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법 개정을 통해 미국 함정 시장이 개방될 경우 한국 조선업의 수혜가 상당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논문은 미국 함정 시장(건조·정비 포함)을 약 1600조원 규모로 추산하며 한국 조선업체가 이 시장에 진출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산업의 질적·양적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아직 불확실성이 큰 만큼 민관 차원의 대비도 요구된다. 정부는 미 의회 흐름을 면밀히 추적해 외교 채널을 통한 설득을 강화하고 미 조달법·보안 규정 전문가를 키워 대응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도 일본·인도 등 경쟁국의 선제 움직임을 감안해 기술력 제고와 미국 내 생산·정비 거점 확보에 속도를 내고 인력 감소와 숙련도 저하를 막기 위한 자동화·인력 양성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이소영 제2지역군사법원 군판사는 “지금은 번스-톨레프슨 계열 규제로 시장 자체가 막혀 있는 만큼, 법 개정 여부가 가장 큰 변수”라며 “미국의 조선 보호 주의는 여전히 강하지만 외교·투자·기술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chale@

전북현대모터스FC K리그1 최초 10회 우승

10개의 별 뒤편 팬 여러분의 함성이 있었습니다.



구단 사상 K리그1 시즌 최대 홈 관중 달성_ 346,763명 (19경기, 잔여 홈 1경기)

여러분의 함성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라운드 위에 쏟아낸 열정으로 함께 만든 10번째의 별!
이 영광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현대자동차와 전북현대는 팬 여러분과 함께
누구도 가보지 못한 K리그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겠습니다.

Progressive Pioneer 전북현대모터스FC



‘뚝뚝한 한채’ 더 몰렸다… 서울 집값 상승폭 한달 새 2배

부동산원, 10월 주택가격 동향

재건축·학군지로 매수세 급반등 지방도 하락 멈추며 시장열기 번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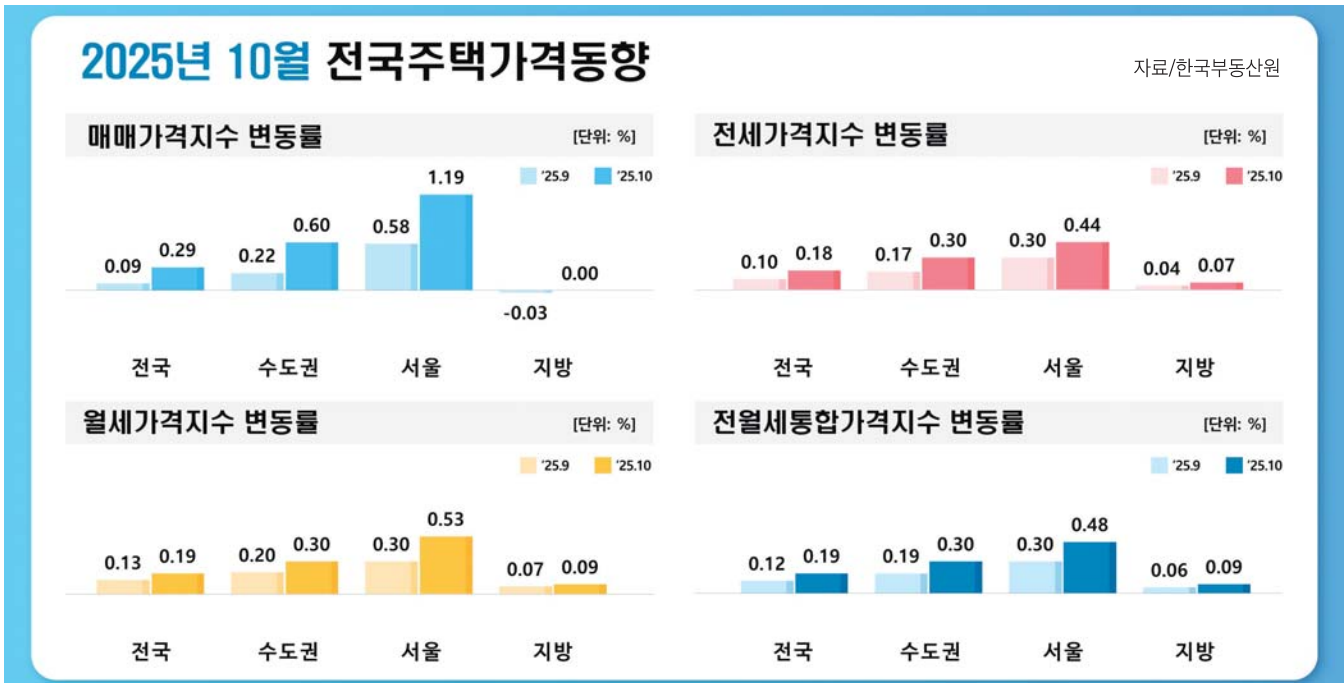
월세 0.19%, 전세 0.18% 오름세
갭투자 금지 등에 전세난 불가피

이재명 정부 들어 9·7, 10·15대책 등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지난달 서울 집값 상승폭이 2배 이상 확대됐다. 지방 아파트값은 하락세가 멈췄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0.29% 올라 전월(0.09%)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국 월별 상승률은 6·27대출 규제로 6월 0.14%에서 7월 0.12%, 8월 0.06%로 둔화됐지만 9월 0.09%, 10월 0.29%로 두 달 연속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서울 매매가격은 1.19% 올라 전월(0.58%) 대비 상승폭이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서울 역시 6월 0.95%에서 7월 0.75%, 8월 0.45% 등으로 상승세가 둔화되다가 9월 0.58%, 10월 1.19%로 상승폭을



키웠다. 누적 상승률은 5.42%에 달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수도권에 소재한 재건축 및 학군지 등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집중되고, 상승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며 “정주여건이 다소 열세한 외곽 소재 단지 등은 거래가 한산한 반면 준신축, 재건축 추진 단지 등에서는 상승세가 관측

되는 등 혼조세 속에 전국은 전월 대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증가 등을 우려한 수요자들의 ‘뚝뚝한 한채’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주간 단위로 보면 10·15대책 발표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는 분위기다.

KB부동산 관계자는 “10·15대책으로

대출 규모가 제한되고, 전입 의무가 강화되면서 매수시장은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거래시장에서 매도 호가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매수자 관망세가 확대되면서 가격은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전·월세도 오름세다.

전세가격의 경우 전국적으로 0.18%

오르며 전월(0.10%)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수도권(0.17%→0.30%) ▲서울(0.30%→0.44%) ▲지방(0.04%→0.07%) 등 모두 상승했다.

월세가격 역시 전국적으로 0.19% 올랐다. ▲수도권(0.20%→0.30%) ▲서울(0.30%→0.53%) ▲지방(0.07%→0.09%) 등 전세보다 상승세가 가팔랐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의 월세가격지수는 64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전년 대비 상승률로 보면 ▲인천 10.8% ▲서울 9.8% ▲경기 6.9% 등이다.

KB부동산 관계자는 “10·15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의 ‘갭투자’가 금지되면서 전세물량 부족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 경기 침체로 수도권 외 경우 신규 입주예정 물량은 전년 대비 20%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입자들이 월세로 눈을 돌리면서 월세 거래 비중은 최고치를 매월 경신 중이다. 연초 이후 9월까지 누적 월세 거래량 비중은 62.6%로 전년 동기 대비 5.2%포인트 상승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LTV 70%, DSR 규제 비적용 실수요층 오피스텔 유입 확대

아파트 대출 문턱 높아 3040 집중 거래량 2배 급증, 풍선효과 ‘뚜렷’ 매매가격·임대수익률 연중 최고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의 오피스텔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면서 오피스텔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일인 지난 달 16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오피스텔 매매 거래는 총 76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책 시행 직전 보름(10월 1~15일)간 거래된 289건의 두 배를 웃돈다.

같은 기간 규제 대상인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640건으로 직전 보름(5262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돼 청약통장, 자금조달계획서, 실거주 요건 등 대부분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세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청약 대기자 입장에서 오피스텔을 매입해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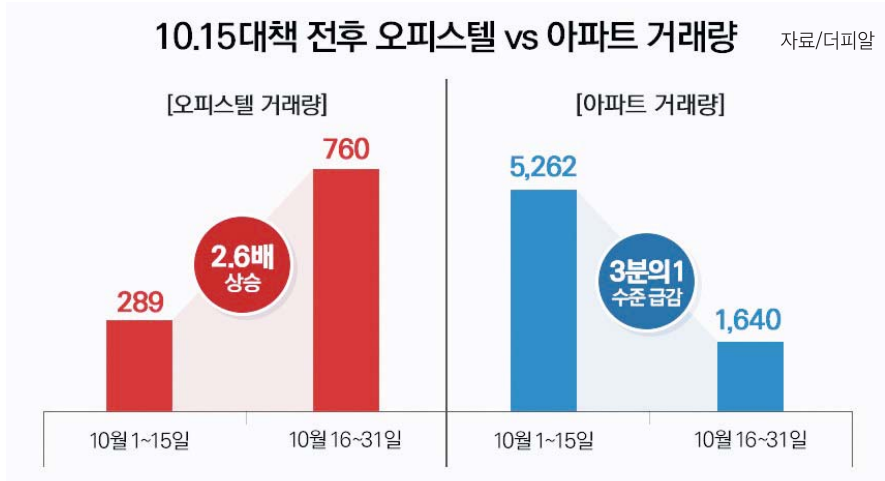
규제를 피한 ‘풍선효과’에 오피스텔 가격도 상승세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0월 기준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124.6으로 전월 대비 0.1포인트(p) 상승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오피스텔 임대수익률도 지난달 4.8%로 2018년 이후 약 7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아파트대출 문턱이 유례없이 높아지면서 LTV 70%까지 가능한 오피스텔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에게 사실상 유일한 ‘주거 사다리’로 인식되고 있다”며 “특히 아파트 청약을 포기할 수 없는 3040세대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면서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는 대안으로 오피스텔을 선택하며 문의가 급증하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재정 압박에 시장 불안… 글로벌 장기채 ‘고공행진’

주요국 재정악화로 장기금리 상승
국제발행 증가하며 시장불안 확대
美·유럽·日 불안고조 국가신뢰 약화

최근 한국을 비롯해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국 장기 국채의 금리가 고공행진 하며 글로벌 시장에 불안의 먹구름이 드리웠다.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하락했다는 의미다. 이는 주요국 정부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킨다.

미국·일본·유럽에서도 과도한부채증가로 장기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부채 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이 다른 국가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확대 재정 정책으로 부채를 키웠고, 최근에 고금리 후유증에 따른 경기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돈 풀기’로 돌아선 추세다.

◆주요국 장기채 상승, 왜

트레이딩이코노믹스에 따르면 14일 기준 벤치마크 금리인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4.1470%로 최근 한 달 동안 0.11%포인트 올랐다. 호주(4.4350%), 독일(2.7166%), 프랑스(3.4546%)의 국채 10년 물도 각각 0.21%포인트, 0.16%포인트, 0.12%포인트씩 올랐다. 특히 터키의 경우 32.9350%로 3.10%포인트 치솟았다.

금융투자업계 따르면 주요국들의 재정건전성 문제와 정치적 불안정성 등이 장기물 금리를 밀어올렸다. 현재 주요 선진국들의 재정 적자 중 시장성 국채 조달 비중은 미국 99%, 일본 95%, 영국 9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8% 등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정한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 효과에 따르면 재정지출 1%포인트 증대 시 10년물 국채금리 약 20~30bp 상승 효과가 나타난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의 부채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관세 불확실성과 연방준비제도(Fed)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도 더해졌다.

제품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투자자들은 미국 정부의 부채 상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장기 금리는 오르고 환율은 춤을 춘다.

시장 불안도 금리를 자극한다.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소송 심리로 관세 수입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압박을 가중시켰다”고 분석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재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의 날’ 상호관세와 대중국 징벌적 관세 적법성을 심리 중이다.

‘퍼주기’ 복지와 이를 충당하기 위해 막대한 국채 발행을 해온 유럽 주요국들도 무거운 청구서를 받게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장기물 금리 상승은 주로 재정 적자, 국채 발행, 인플레이션과 얽힌 글로벌 현상”이라고 짚었다. 특히 주요7개국(G7) 국가 중 가장 높은 차입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영국은 성장을 둔화, G7 가운데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 공공재정 압박 등이 금리를 압박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재무장관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가능성까지 거론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프랑스 성장률을 0.6%로 보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예상하는 0.8%보다 낮다. 게다가 최근 건축 재정을 둘러싼 정치 불안으로 프랑스는 국가신용등급까지 강등된 상태다. ‘재정 적자 확대→채권 금리 상승→정부 건축 재정’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독일 경제도 불안하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국 기업과의 경쟁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독일 경제에 구조적 리스크”라고 짚었다. 에너지 가격 급등도 경제를 위축시켰다. 독일 정부는 인프라와 국방 지출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아직 경기 부양 효과는 크지 않다.

일본도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운다. 다카이치 사나에가 총리로 선출된 직후 일본 30년물과 40년물 금리가 3.2%, 3.5%대를 넘어서며 2000년대 최고 수준이다. 골드만삭스는 “일본 국채가 10bp 충격을 받으면 미국, 독일, 영국의 국채 수익률이 2~3b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측했다. 글로벌 금리 시장은 연결돼 있다. 일본이 흔들리면 미국도 흔들린다.

더욱 불길한 것은 치솟은 금 가격이 다. 온스당 4000달러를 넘어섰다. 올해 초 2800달러였던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상승이다. 달러가 강세를 보여도 금은 더 강하게 오른다. 이것은 투자자들이 종이 화폐 전체를 불신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시장 한 관계자는 “달러가 다른 통화들보다 강할 수는 있지만, 종이 화폐 자체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 불안·금융시장 변동성, 장기채 상승

한국은 다름냐,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4일 기준 국고10년물은 5.0bp(1bp=0.01%포인트) 상승한 3.317%에, 국고30년물은 6.6bp 오른 3.242%에 거래를 마쳤다. 역시 작년 6월(6월28일 3.266%, 6월12일 3.245%)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글로벌 불안과 확정 재정이 부채를 불리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새 정부의 확장재정 기초 전환으로 올해 국고채 총 발행량은 23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내년도 국고채 발행 한도도 232조원으로 제시됐다. 새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는 국고채 수급 불균형 이슈가 자극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2028년까지 72조원대로 축소 경로였지만, 130조원대로 확대되는 흐름으로 수정됐다”며 “재정 확대와 국채 수급 이슈는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AI 3대 강국의 가능성을 키우는 LG

다양한 가능성이 AI를 만나
무한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LG는 AI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AI 경쟁력을 만들어갑니다



LG디스커버리랩

청소년 대상 연간 3만 3천명 이상, 체험형 AI 교육 프로그램 운영



LG에이머스

청년 대상 연간 5천명 이상, 산업데이터 활용한 실전형 AI 전문가 육성



LG AI대학원

국내 최초 교육부 인가, 글로벌 AI 인재 육성을 위한 사내 대학원 학위과정

미래, 같이



“年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TF
산안법 개정안 7건 우선처리
안전의식 확산·실효적 제재

더불어민주당이 11월 정기국회 내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7건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안전보건공시제와 과징금제도 도입 등 기업의 산재 예방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테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김주영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재 예방 TF 11월 정기국회 입법과제 발표회’에서 “노동 안전 대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총 17건 중 7건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것은 지난 9월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TF는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위험성 평가 미실시에 대한 제재 신설 ▲명예산업안전관리감독관 위촉 의무화 ▲신고포상금제도 신설 ▲안전한 일터위원회 설치 ▲과징금제도 신설 등을 11월 국회 내 추진할 방침이다.

일단 다수·반복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다. 앞서 정부는 이 경우 과징금 하한선을 30억원으로 둘 것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단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재예방TF 11월 정기국회 산업안전 입법 추진 과제 발표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을 발표했지만, TF는 향후 논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산업재해보상법 개정 사항으로는 기업의 산재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주·공공기관의 장이 산업 재해 발생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 ‘안전보건 공시제’, 재해 원인 조사 결과 등을 담은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등이 제시됐다. 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신설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명예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명예감독관은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도록 했다.

산업 안전 법령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산업재해 예방 대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구도 설치·운영하도록 법적 근거

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사항으로는 ▲산재 국선 대리인 제도 도입 ▲미지급 모험급여 수급권 상속 순위 규정이 제시됐으며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 사항으로는 ▲재해예방 활동 인정 기간에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감면 취소 등이 포함됐다.

김주영 의원은 “산재예방TF는 출범 직후 당정은 함께 ‘안전 사회’를 만든다는 일념 하나로 현장 곳곳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경영계·노동계와 만나 법·제도의 미비점을 찾아 논의했다”며 “안전의식 확산은 물론 실효적인 제재가 그 핵심으로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국민의힘, 6·3 지선공천에 ‘PT 평가’ 도입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성과 평가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현직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임기 성과 설명 프레젠테이션(PT)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헌·당규 개정을 한 후 내달부터 현직 지자체장을 상대로 평가를 시작할 방침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테스크포스) 위원장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3 지방선거 광역·기초자치단체장 평가체계를 발표했다.

평가는 ▲정량지표(경제·리더십·당 기여 지표) 50% ▲개인 PT 20% ▲여론 조사 30%로 구성된다. 평가 결과는 향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해 공천심사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정 위원장은 정량지표 중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 노력 평가’에 대해 “지방정부의 핵심 책임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집중적으로 다룬다”며 “고용률, 투자유치 등 예산확보, 재정건전성 등 객관적 성과지표 반영해 단체장이 지역의 성장 동력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수치로 입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리더십 평가에 대해선 “국민의힘 단체장은 위기속에서도 주권을 지킨다는 기조 아래 청렴도, 주민소통, 공약이행, 지역안전관리 등 단체장의 책임성과 실행률을 종합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당 기여도 평가는 중앙당 및 시·도당과의 정책 공조, 당정 협의 참여, 대정부 대응 등 정당 활동 전반이 주요 평가 요소다.

특히 이번 평가 과정에서는 현역 지자체장의 PT를 도입한다. 정 위원장은 “각 단체장은 민선 8기 주요 성과와 지역에 특화된 정책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전체 정책으로 확장 가능한 사례를 직접 PT로 발표한 뒤 제출해야 한다”라고 했다.

TF는 지역 성공사례들을 추후 국민의힘 전체 공약집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TF는 이날 확정된 선출직 평가체계 시스템에 대한 관련 의견을 수렴해 내달 시작될 선출직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현행 당헌·당규에는 선출직을 평가하는 내용이 없다. 이에 공천 과정에 평가 시스템을 포함하겠다는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하고, 공관위가 해당 절차를 적용한다는 당규를 신설해야 한다.

/서예진 기자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7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해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안전섭 특검, ‘관봉권·쿠광 의혹’ 파헤친다

李 대통령, 임명안 재가
안 특검 “막중한 책임 느껴”

이재명 대통령이 ‘관봉권 피지 폐기 의혹 및 쿠광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안전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16일) 안 특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안전섭 특검(60·사법연수원 25기)은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법무부 법조인력과 부장검사,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앞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특검 후보자로 안전섭·박경춘 변호사 두 명을 추천했다.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내 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일반특검과는 달리 상설특검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등 각 30명 이내로 꾸려진다. 상설 특검은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가동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다. 관봉권 피지 폐기 의혹은 서울남부지



관봉권 피지 폐기 의혹과 쿠광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상설특별검사)에 임명된 안전섭 변호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로 출근하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현금 다발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을 묶은 관봉권 피지가 증거물 보존 과정에서 사라진 사건이다. 피지에는 현금 검수 일자와 담당자 이름 등이 기록돼 있는데, 이것이 분실된 사실이 알려지자 ‘핵심 증거를 인멸했다’며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쿠광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던 지난 4월 쿠광폴필먼트서비

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검사(현 광주지검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엄 검사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여권에서는 엄 검사를 ‘친윤 정치검사’로 분류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표적 수사를 했다고 보고 있다.

안전섭 특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임명 소감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설특검 후보추천위가 안 특검 외 추천한 박경춘 변호사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1기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지냈고 법무법인 서평에서 근무 중이다.

그런데 박 변호사는 서울지검에서 근무하던 2003년 3월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최한 ‘검사와의 대화’에 참석해 “옛날 모 언론에서 대통령님께서 83학번이라는 보도를 봤다. 혹시 기억하시느냐”고 발언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당시 박 변호사의 발언은 ‘대통령에 대한 조롱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노 전 대통령 사위인 과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추천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예진 기자

李 대통령, 중동서 ‘평화·번영·문화’ 협력증진

G20 정상회의 위해 7박10일 순방
UAE 아부다비 도착… 국민일정 소화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참석 등을 위해 7박10일간의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5분께 김혜경 여사, 참모들과 함께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로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후 아부다비에 도착해 사흘간 국민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먼저 현충원과 고(故) 자이드 UAE 초대 대통령의 영묘를 방문했다. 이날 저녁엔 재외동포·지상사들과 만난 간담회를 가졌다.

이튿날인 18일엔 공식 환영식,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민 오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UAE 방문 마지막날인 19일에는 한-UAE 비즈니스 라운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경제인들과 함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오후에는 아크부대에 방문해 장병을 격려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UAE는 우리가 중동국가 중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

계’를 맺고 있는 핵심 협력국”이라며 “신정부 출범 후 첫 중동 국가 방문인 이번 방문을 통해 4대 핵심 분야인 투자, 국방·방산, 원전, 에너지를 넘어 첨단기술, 보건의료, 문화 등에서도 한-UAE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UAE 방문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엔 UAE뿐 아니라 이집트, 튀르키예를 방문하는데, 세 나라 모두 중동의 핵심 국가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을 통해서 ‘평화·번영·문화’의 세 차원에서 우리와의 호혜적인 협력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며 “평화 차원에서 한반도 중동 평화에 대한 상호 지지를 확인하고 국방 교류, 방산, 수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번영 차원에서 투자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고, 첨단기술과 보건의료 분야 등 미래 지향적 협력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며 “문화 차원에서 중동 지역 문화의 허브인 이들 국가들이 ‘K-컬처’의 거점이 되도록 교류 확대의 물꼬를 트겠다”고 밝혔다.

UAE 국민 방문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19일부터 21일까지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다. G20 정상회의는 21~23일 참석하며, 24~25일에는 튀르키예 국민 방문 일정이 예정돼 있다.

/서예진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매달 다른 매출과 복잡한 세금, 잘 관리하고 있는 걸까?"

"정산부터 가게 관리까지 한 번에 도움받을 순 없을까?"

"우리 가게에 꼭 맞는 정책자금, 누가 좀 알려줬으면..."

HANA THE SOHO

하나더소호

개인사업금융의 든든한 파트너

소호 사장님의 모든 고민을 해결할 하나뿐인 솔루션



맞춤 금융



경영 지원



간편 금융

| 명동 '곰국시집' 유미화 사장님 | 곰국수 하나로 한국의 맛과 전통을 지켜온 곰국시집, 20년간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온누리상품권 본래 취지 회복 나선다… 고소득 업종 ‘제동’

신규 가맹점 66% 고소득 업종
온누리상품권 ‘사각지대’ 논란

가맹점 등록 매출 제한 기준 등
공정성 개선 위한 법률안 논의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소비를 촉진하는 ‘온누리상품권’의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된다. 기존 법안에 매출 제한이 없고 법률적 사각지대도 많았던 만큼, 가맹점 등록 기준을 명확히하고 매출 기준도 마련해 그 수혜가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1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오세희 민주당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기준을 명확히하고, 매출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의 가맹 등록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이다. 전통시장과 지역상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발행 형태에 따라 5~15% (지류 5%·디지털 10%, 명절기간 5% 추가 할인)의 액면가 할인이 적용된다. 또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주기적으로 5~15%의 페이백(부분 환급)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액면가 대비 실질 할인율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특별법에 관심이 쏠린다. 지류 온누리상품권. /뉴시스

은 최대 30%에 육박한다.

온누리상품권의 제도 개선이 논의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온누리상품권이 당초 정책 목표와 다르게 고소득 영업장과 대형 유통업체로 흘러가고 있어서다. 중기부는 지난 9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개선안을 마련했고, 지난달에는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폐업 후 미신고나 외부 영업 등으로 가맹점 지위를 우회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는 총 5조5000억원으로 설정됐다. 지난 2021년 3조원 규모에서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적극적인 판촉 전략과 가맹 홍보에 디지털온누리상품

권 가맹점 수도 1450만 곳으로 늘어, 올해 초와 비교해 9배나 급증했다.

온누리상품권의 발행량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그 혜택은 당초 정책 목표인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지난해 9월 허용 업종 확대 조치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은 학원·병원·약국·노래연습장 등 업종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졌는데, 오세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허용 업종 확대 조치 이후 1개월 동안 등록된 신규 가맹점의 66.3%는 고소득 사업자였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은 고가 주류나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전통시장 내 대형 식료품 매장 등에서 우회적으로 판매하는 등 정책적 사각지대도 여전하다.

유통량 대부분이 학원·보건업·대형유통업체 등 전통시장 바깥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올해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전액 소진됐다. 중기부는 지난 10일 예산 소진을 이유로 온누리상품권(지류·디지털)의 할인 판매를 중단했다. 2009년 온누리상품권 출범 이후 관련 예산이 소진된 것은 처음이다. 연말 ‘소비 대목’을 앞둔 만큼, 온누리상품권 예산 소진은 소상공인의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역에서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은 “온누리상품권은 가격 혜택이 큰 만큼, 소상공인 매장과 대형 유통업체와의 가격 경쟁력 차이를 매꿔주는 역할을 한다”면서 “연말 수요에 맞춰 상품을 발주해야 하는데, 할인이 갑작스레 사라져 수요를 예측하기 어렵고, 매출에 대한 걱정도 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의 법률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 혜택이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논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희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은 매년 발행량이 확대돼 내년에도 5조5000억원이 발행될 예정이지만, 가맹점의 상당수는 전통시장 상인보다 매출 규모가 큰 점포로 구성됐다”라면서 “매출 기준 명확화와 정보연계 체계를 통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한 본래 취지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지난 15일 자이갤러리에서 진행된 ‘자이안데이’ 행사. /GS건설

GS건설

자이 리브랜딩 1주년 고객초청 이벤트 진행

GS건설은 자이(Xi) 리브랜딩 1주년을 맞아 브랜드의 변화를 고객들이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고객 참여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GS건설은 지난 15일 대치동 자이갤러리에서 기존 입주단지 고객들 중 주침을 통해 선발된 50여명을 초대해 ‘자이안 데이’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리브랜딩 이후 변화한 자이(Xi)의 프리미엄 커뮤니티 콘텐츠를 기존 고객들이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차움과 파르나스호텔이 함께 참여해 건강과 라이프스타일을 주제로 강연과 와인 시음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리브랜딩 1주년 기념 그림 그리기 공모전 ‘내가 그린 자이 그림’도 진행했다. ‘미래의 자이’와 ‘자이만의 공간’을 주제로 아파트에서 사는 삶 속에서 영감을 받은 특별한 일상과 경험을 자유 형식으로 표현하는 고객참여형 이벤트다.

공모전은 자이(Xi) 브랜드 웹매거진 ‘비욘드에이(BEYOND A.)’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그림과 AI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 공모전에서 약 800여점의 작품이 출품됐고, 그 중 대상 1명 포함 총 11명을 선정해 수상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수익 막힌 카드업계, 스테이블코인 신사업 만지작

8개사 발행 상표권 158개 달해
추가행보 없어 전략 실효성 논란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카드업계가 스테이블코인 등 신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17일 지식재산정보 검색 시스템 키프리스(KIFRIS)에 따르면 삼성카드를 제외한 주요 8개 카드사(신한·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NH농협카드)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은 총 158개에 달한다.

여신금융협회도 앞서 9개 카드사와 ‘스테이블코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공동 출원했다. 스테이블 코인 제도 도입 본격화와 흐름에 따라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 인프라 구축 마련에 시동을 건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으로 카드사들의 부진한 수익성이 지목된다. 실제 카드



서울 소재 한 음식점 입구에 결제가능 신용카드 스티커가 붙어 있다. /뉴시스

사들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출 규제 등으로 순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핵심 수익원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수익원 창출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상표권 출원 이후 뚜렷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상표권 출원 시기가 약 2~3개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행보가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

계자는 “업계 내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한 전문가도 부재하고, 인프라 구축도 아직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고 설명했다.

해외 카드사들은 스테이블 코인 연계 카드를 출시하면서, 이미 스테이블코인 신시장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카드사인 비자(VISA)는 남미·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출시한다. 스테이블코인 결

제 플랫폼인 브릿지(Bridge)와 협력해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에콰도르, 멕시코, 페루, 칠레 등 6개국에서 우선 선보인다.

마스터카드 역시 디지털자산 거래소 ‘오케이엑스(OKX)’, ‘크라켄(Kraken)’, 디지털자산 핀테크 ‘문페이(Moonpay)’와 제휴를 맺고 미국, 영국, 유럽 지역에 스테이블코인 카드를 출시한다. 또 지난 4월 판매자가 판매 대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정산받을 수 있도록 서클(Circle)과 캐나다 핀테크 누베이(Nuvei)와 제휴했다. 스테이블코인 사업 영역을 카드 결제에서 기업 간 거래(B2B) 정산 부문까지 넓힌 것이다.

하나금융연구소 유승원 연구원은 “국내 카드사들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환경 변화 및 시장 기회를 꾸준히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이억원 “국민성장펀드, 정부·기업·국민의 잠재력 극대화”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기업·국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구심점이 될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7일 한국산업은행 별관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헌관식 및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산업은행과 5대 금융지주 간 맺어진 것으로 5개지주와 산업은행이 프로젝트별로 자금지원에 협력하고, 전문인력을 파견해 첨단전략산업의 지원 검토사업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금융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정부·산업계·금융권이 함께 첨단산업의 미래와 비전에 깊이있게 고민하고 메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추진 전략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로운 유망기업의 탄생과 성장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혁신

에도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그 규모뿐만 아니라 지원방식과 협업체계도 그간의 산업금융이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라면서 “기존의 영업관행과 마인드는 획기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출자부담 개선 방안, 발생할 수 있는 투자실패에 대한 면책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의사결정을 돕겠다”고 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안재선 기자

국내 방산 ‘기술전환’ 본격 시동 AI·무인·유도무기 개발경쟁 치열

방산 4사, 3분기 누적 R&D 9527억
미래전장 대비 핵심기술 내재화 가속
지상·항공·로봇 무인체계 연구 강화

국내 방산업체들이 연구개발(R&D)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며 기술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차세대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기술 확보가 시급해지면서 기업들이 미래 무기체계 개발을 중심으로 투자 방향을 재편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주요 방산 4사의 올해 3분기 누적 R&D 투자액은 95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가량 증가했다. 업체별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5670억원을 R&D에 투자하며 가장 많은 금액을 집행했다. 지난해 6091억원보다 6.91% 감소했지만 주력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1684억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고 KAI는 1305억원으로 23% 확대됐다. LIG넥스원은 86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9% 늘었다.

방산업계의 투자 확대는 향후 무기체계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한 기술 내재화 속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공지능(AI), 무인체계, 센서 융합 등 차세대 전장 기술이 빠르게 부상하면서 국내 기업들도 개발 범위와 적용 분야를 넓히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목적무인차량 ‘아리온스멧’

로봇 기반 전장 기술의 적용도 확산되고 있다. DMZ 지뢰 탐지·제거 로봇, 전투 중 낙오 병력을 탐색하는 구조 로봇 등은 실전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율비행·자율주행 플랫폼, 복합임무 수행형 무인체계 개발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차세대 기술 적용과 무인·유무인 복합체계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주요 기업들의 개발 전략도 이에 맞춰 진화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기동 무기체계, 화력무기체계, 대공무기체계, 유무인복합체계에 등 지상 분야 전반에서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밀유도무기 분야에서는 추격정밀제어기능과 고기동성을 갖춘 추진기관부터 유도조종 핵심기술이 반영된 통합유도조종시스템까지 기술 영역을 확대해

나가며 유도무기체계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현대로템은 자율주행 및 로봇기술을 접목한 다목적무인차량, 다축보행로봇 등 미래 무인체계 제품군을 넓히고 있으며 발사체 엔진 등 항공우주 분야 연구개발도 지속하고 있다.

개발 속도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향후 기업들의 투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방산 4개 기업의 R&D 투자가 전년보다 확대된 것은 유무인 복합체계 등 미래 기술 분야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라며 “완전한 유무인 체계를 구현한 국가는 아직 없지만 국내 기업들이 개발 속도를 유지하고 있어 얼마나 빨리 완성하느냐가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BYD, 에너지·기술·문화 순환 생태계 구축

중국 정저우에 ‘메가팩토리’ 건설
모래·빙판·수상 극한 테스트 완비
3초 1셀 배터리 생산능력으로 승부
1분 1대 생산… 초고속 라인 공개

BYD가 중국 정저우에 전기차 산업의 ‘새로운 도시’를 세웠다. 배터리부터 완성차, 체험과 교육까지 아우르는 초대형 복합 단지로, 전기차를 넘어 에너지·기술·문화가 순환하는 생태계를 구축했다. ‘중국의 테슬라’로 불리던 BYD가 이제는 ‘테슬라의 대안’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속도·정밀·효율”정저우메가팩토리의 힘

BYD는 최근 허난성 정저우에 ▲10.67㎢ 규모의 메가팩토리 ▲전지형 서킷(All-Terrain Circuit) ▲친환경차 과학관 ‘디스페이스(Di-Space)’를 잇달아 완공했다

정저우 메가팩토리는 지난 2021년 9월 착공해 2023년 4월에 본격 가동됐다. 불과 17개월 만이다. 정저우 메가팩토리부지 10.67㎢(약 322만 평), BYD 생산거점 중 최대 수준이다. 직원 6만 명 규모의 이 거대한 생산기지는 BYD의 전 라인업을 한곳에서 만드는 유일한 공장으로서 BYD의 30년 제조 노하우가 응축된 ‘플래그십 생산기지’다.



BYD 정저우공장.

정저우공장은 배터리·부품·완성차를 한 부지 안에서 통합 생산하는 스마트 제조 플랫폼이다. 프레스·용접·도장·조립의 4대 공정을 모두 자체 설비로 운영되고 모터·프레임·전자제어·시트·램프 등 핵심 부품 공장이 인접해 있다. 원재료 투입부터 완성차 출고까지의 전 과정이 실시간으로 연결돼 효율을 극대화했다.

BYD는 각 공정의 로봇과 설비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지능형 공정 시스템’을 도입했다. 인공지능 기반 품질관리 프로그램이 불량률을 사전에 예측하고, 모델 수요에 따라 생산 라인이 자동으로 조정된다. 한 라인에서 최대 50개 차종을 혼류 생산할 수 있다.

BYD 관계자는 “정밀도는 0.01mm, 용접 자동화율은 98%로 세계 최고 수준으

로 완성차는 1분에 1대, 배터리는 3초마다 1개가 생산된다”며 “11개 완전 자동화 공정과 5000대 이상의 로봇이 초단위 생산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킷과 과학관, ‘기술을 경험하는 공간’으로

정저우 메가팩토리 옆에는 세계 유일의 전기차 종합 주행시설인 전지형 서킷이 있다. 총면적 21만㎡, 8개 구역으로 빙판, 모래, 수상 주행, 오프로드를 모두 갖췄다. 이 공간에서 전기차·하이브리드차의 극한 주행 성능을 검증하고 일반 소비자에게 친환경차 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곳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모래 경사로 구역’이다. 수직 낙차 29.6m, 경사도 28°로 세계 최대 규모의 실내 모래 언덕 등반 시설로 급경사 등판과 탈출, 경사면 회피 등 다양한 극한 상황 재현이 가능했다.

‘수상 부유 체험 구역’에서는 다시 한번 놀랐다. e4 플랫폼 기반 ‘비상 플로팅 모드’를 통해 수심 1.5m의 수조 위를 전진·후진·회전하며 주행할 수 있다. 위급 시에는 30분간 부유 주행도 가능해 “안전은 전기차의 가장 큰 럭셔리(Safety is the greatest luxury)”라고 강조한 왕촨푸 BYD 회장의 말이 실현된 공간이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LG엔솔, 국내 첫 ESS용 LFP 생산 돌입

오창서 ‘마더팩토리’ 가동

LG에너지솔루션이 국내에서 에너지 저장장치(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생산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충북도와 함께 오창 에너지플랜트에서 ‘ESS용 LFP 배터리 국내 생산 추진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말부터 생산라인 구축을 시작해 2027년부터 본격 가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초기 생산은 1GWh 규모로 시작할 예정이며 향후 시장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생산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비(非)중국권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ESS용 LFP 배터리

양산 체계를 확보하고 있다. 2024년 중국 남경 공장에서도 ESS용 LFP 배터리 양산을 시작했고 올해는 미국 미시간 공장에서도 양산이 시작됐다. 북미·유럽에서 대형 ESS 프로젝트 수주도 꾸준히 늘어나 올해 3분기 말 기준 수주 잔고는 약 120GWh에 달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국내 ESS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이 같은 ‘성공 경험과 노하우’를 오창 에너지플랜트에 그대로 이식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복원 충북도 경제부지사는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에서 국내 최초로 ESS용 LFP 배터리 생산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ESS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관희 기자

현대차, G20 정상회의 공식 의전차량 지원

다목적차량 ‘스타리아’ 30대 배치

현대자동차가 오는 22,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2025년 G20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에 현대차의 다목적차량(MPV)인 ‘스타리아’ 30대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스타리아는 정상회의 기간 현장에서 각국 대표단 소속 수행원들의 이동을 돕는 등 성공적인 행사 진행을 위해 활용될 계획이다.

회의에는 G20 회원국 및 초청국 정상과 유럽연합·아프리카연합 지도부, 유엔·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세계 각국 정상이 모이는 주요 외교무대에 ▲미래지향적 외관 디자인 ▲극대화된 실내 개방감 ▲다양한 목적에 맞춰 자유자재로 변경 가능한 실내 공간 ▲첨단 안전·편의사항 등의 특징점을 갖춘 스타리아를 지원하며 현대차 차량의 우수한 상품성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지난 9월 5일 남아프리카공

화국 행정수도 프리토리아에 위치한 남아공 외교부 청사에서 G20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 공식 차량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식에는 현대차 GPO 김일범 부사장과 안나 탄디 모라카(Anna Thandi Moraka) 남아공 외교부 차관, 제인 당고르(Zane Dangor) 남아공 외교부 사무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일범 현대차 GPO 부사장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사상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G20 정상회의에 현대차 차량을 제공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G20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Solidarity, Equality, Sustainability)’을 주제로 열린다. G20은 지난 1999년 12월 한국을 포함한 20개 주요국과 EU가 참여해 국제 경제와 금융 현안을 논의하는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체로 출범했다.

/이승용 기자

LG, 가전·리빙 통합 제안 서비스 선택

온라인브랜드샵 ‘홈스타일’ 오픈

LG전자가 자사 온라인브랜드샵(LG E.COM)에 가전과 리빙 인테리어를 함께 제안하는 ‘홈스타일’ 서비스를 도입하며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고객 경험을 확대한다.

LG전자는 홈스타일을 통해 가전과 조화를 이루는 프리미엄 리빙 브랜드를 선별해 제안하고, 제품 탐색부터 구매·상담·시공까지 한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온라인브랜드샵 이용 고객들의 리빙 제품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공간 연출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취지다.

홈스타일에는 ▲놀(Knoll) ▲알로소(Alloso) ▲잭슨 카멜레온(Jackson Chameleon) ▲뮤지엄오브모던키친 등 국내외 400여 개 브랜드와 약 2만여 개 제품이 입점했다. 이 가운데 ▲포르(Porr

o) ▲롤프 벤츠(Rolf Benz) ▲케인 컬렉션(Cane Collection) 등 프리미엄 브랜드는 독점으로 선보이며 디자인 철학과 제품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LG전자는 최신 인테리어 트렌드를 반영해 거실·주방·침실·서재 등 공간별 스타일링 이미지를 제안한다. 예를 들어 휘센 에어컨을 설치한 거실에 어울리는 소파·러그·조명 조합을 이미지로 보여주고, 고객은 해당 이미지에서 바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전문 홈스타일리스트의 1:1 맞춤 컨설팅도 지원한다. 전문 인력이 고객의 공간 구조와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가전·리빙 제품을 제안하며,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 인테리어 시공 파트너사 연결도 제공한다. LG전자는 향후 고객 후기·스타일링 팁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형식으로 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정희준 기자 nauta@

중기중앙회, ‘소상공인 성장 정책 토론회’ 개최

“소상공인 지속성장 위해 협동조합기본법 주무부처 이관 필요”

온라인·디지털화 등 정책방안 논의
협동조합 정책 일원화 한 목소리
“더욱 전문적인 지원체계 마련해야”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규모화를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협동조합기본법’의 주무부처를 기획재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포함한 협동조합 정책을 일원화하고 더욱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목소리다.

현재 기재부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기부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각각 관장하고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한 거래구조가 꼭 필요한 만큼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위한 법·제도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연 ‘소상공인 성장 정책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온라인·디지털화 등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소상공인 성장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표·토론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해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에서 ‘소상공인의 성장정책 방안’이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한 민주연구원 정상희 정책연구실장은 “소상공인은 가장 작은 기업형태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발휘한다”면서 “모든 소상공인이 정부의 정책 지원을 통해 성장하는 방향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못한게 현실인 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강화’에 맞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 ▲회계, 매장관리, 금융, 마케팅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 및 확산 ▲전문 교육기관 운영을 통한 디지털·경영역량, 재도전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실시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아울러 정부의 ‘상권르네상스 2.0 정책’을 활용한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 강화 역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중

점을 두어야한다는 분석이다.

정상희 실장은 “협동조합기본법의 주무부처를 중기부로 바꿔 정책 및 실행체계 일원화, 전문화된 지원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면서 “소상공인 협동조합에는 공동행위를 비롯한 협의요청권 부여 뿐만 아니라 플랫폼 입점업체, 대리점, 가맹점 등 본사와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또다른 발제자로 나선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위평량 소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주

제로 한 발표에서 “온플법 및 디지털시장독점규제법 제정,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강한 규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권익보호 강화, 불공정과 부당행위에 대한 올바른 통제와 규제 등 공정한 거래구조를 위한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배달 및 광고수수료 등 플랫폼 관련 각종 비용을 인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마련하는 등 각종 수수료 부담 문제도 해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해 “단계 내(within)-단계 간(between) 이원화된 성장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며 ‘Two-track Build Up Strategy’를 정책으로 제안했다.

소공연 차남수 정책개발본부장은 “성장을 위해선 소상공인을 생계형→안정형→성장형→기업형으로 구분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한다”면서 “단계 내 빌드업”은 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 지원, ‘단계 간 빌드업’은 사다리형 성장 지원에 집중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민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박산업 KB국민은행 부행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태영 NH농협은행장,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가운데)이 17일 서울 종로구 JW 메리어트 동대문에서 열린 ‘2025 공급망 탄소 감축 상생 프로그램 업무 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확대

중기부, NH농협은행 등 업무협약
내달 15일부터 4개 은행 가입 가능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목돈 형성을 돕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취급은행이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내달 15일부터 가입은행이 기존 IBK기업은행, 하나은행에서 4곳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내달 15일부터 4개 은행 전국 2500개 지점에서 우대 저축공제 가입이 가능해져 더 많은 중소기업과 재직자들이 가입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중소기업을 좋은 일자리로 생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근로자가 매달 10만~50만원을 납

입하면 기업이 매달 근로자 저축액의 20%를 지원하고 은행에선 최대 4.5%의 금리를 우대해 5년 만기시 398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우대 저축공제는 민간은행과 정부가 협업해 지난해 10월 출시한 이후 1년 동안 7100개사에서 3만6500여 명이 가입했다. 지난 9월에는 기존 5년형 상품에 더해 3년형 상품을 추가로 출시해 선택의 폭도 넓혔다.

이날 협약식에 참가한 NH농협은행 강태영 행장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업 참여로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며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따뜻한 금융 동반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한패스, 쌍인 대표가 직접 참석해 청년 재직자 등 30명을 대상으로 우대 저축공제 사전 청약을 함께 진행하기도 했다.

/김승호 기자

공급망 등 탄소감축 본격 지원

중기부·현대차 등 상생 협약식
주력산업 탄소 경쟁력 제고 협력

정부와현대차·기아가자동차부품 협력 중소기업들의 탄소 감축을 본격 지원하는 등 자동차 산업 전반의 탄소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부는 현대차·기아, 자동차 부품 협력 중소·중견기업 87개사 그리고 자동차부품 산업진흥재단과 함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의 탄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동차 공급망 탄소 감축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사업의 지원 규모를 확대해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들의 저탄소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산업부도 올해 4개 공급망 컨소시엄인 LG전자, LG화학, LX하우시스, 포스코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도에는 새로 시작하는 ‘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사업’

을 통해 공급망 전반으로 본격 확산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부와 현대차·기아가 우선적으로 1차 협력업체의 탄소감축 설비교체를 지원하고, 해당 1차 협력업체는 지원받은 금액만큼을 환원해 중기부와 함께 다시 2차 협력업체의 설비교체를 지원한다. 이와 같은 자동차·공급망에서의 ‘연쇄적 탄소 감축 효과’를 통해 민관이 함께 하는 상생형 탄소 감축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대차·기아는 협력업체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완성차의 탄소 발자국을 낮춘다. 외부사업을 통해 확보한 배출권은 향후 배출권거래제에서 ‘상쇄 배출권’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중기부와 산업부는 이번 자동차 공급망을 시작으로 전기·전자,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조선 등 다른 주력산업으로 ‘공급망 탄소파트너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기보-신한은행

베트남 진출 기업 금융지원

기술보증기금이 신한은행과 함께 베트남 진출 신기술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기보는 지난 14일 베트남 호치민 신한 베트남은행 본점에서 신한은행과 ‘베트남 진출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신한은행의 특별출연금 5억원을 재원으로 1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우대 지원한다. 기보는 ▲보증비용 상향(85%→100%) ▲보증료 감면(0.5%p↓, 2년간)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기보는 신한은행의 보증료지원금 1억4000만원을 기반으로 100억원 규모의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공급하며, 신한은행은 보증료(0.7%p, 2년간)를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웅진프리드라이프

서울현충원 묘역정화 활동

웅진프리드라이프 임직원들이 순국선열의 날을 기념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참배 행사와 묘역 정화활동을 진행했다.

17일 웅진프리드라이프에 따르면 지난 13일 진행된 ‘순국선열의 날 맞이 묘역정화·봉사활동’에는 20여 명의 임직원들이 참여,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위패 봉안당을 방문해 조국을 위해 희생한 이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겼다.

이어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임시정부 요인이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역을 포함해 총 4개 묘역에 걸쳐 1502위의 비석 닦기 및 쓰레기 수거 활동을 펼쳤다.

/김승호 기자

2025 제3회「글로벌 ACX 초월대상」시상 및 컨퍼런스

공공 ACX 구축과 비즈니스 전략

일시 : 2025.11.26.(수) 13:40 ~ 17:10 | 장소 : 메타빌드빌딩 대강당

주 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 관

 한국SW·ICT총연합회



후 원

행정안전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SW저작권협회, 한국데이터산업협회, 정보시스템감리협회, 한국PMO협회,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시상용SW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제로트러스트보안협회, SW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PMO사회적협동조합, 한국정보산업협회, 한국AI·SW산업협회, 한국ICT융합협회, 국방인공지능융합협회, 한국빅데이터학회

시상 부문	표창	주관·후원기관 표창
기업·기관·개인	15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전자신문사, 메트로경제신문사, 한국빅데이터학회, 한국SW·ICT총연합회

[제1부] 제3회 글로벌 ACX 초월대상 시상식

일정	시간(분)	내용	비고
13:40~14:00	20′	VIP 티타임	
14:00~14:05	5′	시상식 개회	
14:05~14:30	25′	개회사	조풍연 회장 한국SW·ICT 총연합회
		환영사	류제명 차관 과기정통부
		축사	김 현 의원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
		축사	이해민 의원 국회 과방위 (조국혁신당)
		축사	임문영 부위원장 국가인공지능 전략위원회
		격려사	강병준 사장 전자신문
		격려사	이장규 사장 메트로경제
14:30~15:00	30′	시상식 및 기념촬영	
15:00~15:20		Break Time	

[제2부] 컨퍼런스 : 공공 ACX 구축과 비즈니스 전략

일정	시간(분)	트랙 I	트랙 II
15:20~15:40	20′	[기조강연] 국가 인공지능정책 기본 방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진수 인공지능정책기획관)	
15:40~16:00	20′	OmniEsol의 공공기관 업무 및 서비스 혁신을 위한 AI 활용 전략 더존비즈온 전충재 상무	AIGen과 함께하는 양방향 바이브 코딩 혁신 토마토시스템, 이지울 연구소장
16:00~16:20	20′	공공AI 에이전트 활용전략과 비전 클라이온 박윤지 대표	AGI의 현재와 미래 (주)PCN, 이금탁 전무
16:20~16:40	20′	Agentic AI를 이용한 SW Test 업무 혁신 사례 소개 와이즈와이어즈, 허태범 상무	AI경쟁력의 핵심, 데이터 품질 한국정보기술단 이동석 본부장
16:40~17:00	20′	공공AI 대전환 실천지침 투이컨설팅 이승봉 상무	공공 AX 통합플랫폼 구축전략 (LLM/RAG Ops, Agent Build, MCP/A2A) 메타빌드 오강탁 본부장
17:00~17:10	10′	경품 추천	

韓-美 ‘빅테크 차별금지’ 합의… 온플법·망 사용료법 제동

독자적 사전규제 강행 불가능해져 망 무임승차 방지법도 동력 잃어

업계, 단기적으로 규제 압박 벗어나 장기적으론 ‘기울어진 운동장’ 우려

한·미 양국이 미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차별 및 불필요한 장벽 금지’를 명문화한 팩트시트(Fact Sheet·공동설명서)에 합의하면서 국내 디지털 규제 정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대 플랫폼의 독주를 막기 위해 추진되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과 글로벌 빅테크의 무임승차를 막으려던 ‘망 사용료법’ 도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선 ‘역차별’과 ‘데이터 주권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한·미 팩트시트에는 “양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와 빅테크 기업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요구사항이 관철된 결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로 한국 정부의 ‘규제 운신의 폭’이 대폭 좁아졌다고 분석한다. 이항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한국의 플랫폼 규제를 자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해왔다”며 “팩트시트 내용은 추상적이지만, 향후 협상에서 이를 벗어나기 어려워 우리 측 입지가 좁아졌다”

고 진단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것은 온플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는 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을 막기 위해 법 제정을 추진해왔으나, 미국 측의 반발에 부딪혀 온 상황이었다. 이번 팩트시트 합의로 인해 정부가 독자적인 사전규제 법안을 강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게

망 이용 대가를 부과하려던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역시 동력을 잃을 위기다. 국내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구글(유튜브)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해왔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은 망 사용료 요구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보고 있어 정부적으로 법제화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업계에서는 단기적으로 규제 압박에서 벗어나 숨을 고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내 기업들은 이미 망 사용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각종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 반면, 해외 빅테크들은 ‘차별 금지’를 방패 삼아 규제망을 빠져나가는 ‘역차별’ 상황이 심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팩트시트에 명시된 ‘위치 정보 및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 보장’ 조항도 뇌관이다. 이는 구글과 애플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1:5000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허용하라는 압박으로 해석

된다. 정부는 안보상의 이유로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년 2월로 미뤘으나, 이번 합의로 인해 거부 명분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플랫폼 업계는 이번 합의를 두고 ‘단기적 안도’와 ‘장기적 우려’가 교차하는 복잡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오던 규제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린 점은 긍정적이나 데이터 주권 상실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팩트시트가 규제 일변도의 흐름을 끊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미국 데이터를 가져와서 연을 실익은 제한적인 반면, 구글 등 빅테크가 한국 소비자의 이용 패턴 데이터를 자유롭게 가져간다면 이는 그들에게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며 “로컬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토종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엔씨소프트, 메인 스폰서 역할 ‘톡톡’… 정부도 관심 집중

‘지스타2025’ 마무리

올해 개최된 ‘지스타2025’는 규모 면에서 지난해보다 전체 부스 수는 줄었지만, 엔씨소프트의 메인 스폰서 참여와 대형 부스가 화제를 이끌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지난 16일 지스타2025가 부산 벡스코에서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는 총 3269개 부스로 지난해 3359개보다 약 90개 줄었고, 참가기업 수도 1273개로 전년 1375개에서 감소했다. 대형 게임사들의 출품 규모가 줄어든 탓에 ‘콘텐츠 밀도가 낮아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방문객 수는 아직 집계 중이지만 주최 측은 “지난해 21만5000명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올해 최대 화제는 단연 엔씨소프트였다. 그간 지스타 행사에 보수적인 입장이었던 엔씨소프트가 지스타 메인 스폰서를 맡으며 중심부 스테이지를 장악했고, 초대형 LED 월과 체험존을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2025’.

**올해 부스, 참가기업 수 모두 줄어
대형사 출품 감소로 콘텐츠 밀도 ↓
비즈니스·인디게임은 안정적 운영**

갖춘 ‘플래그십 부스’를 선보여 관람객들의 발길을 집중시켰다.

주요 대형사가 참여를 축소한 상황에서 엔씨소프트의 선택은 사실상 지스타 2025를 대표하는 상징적 장면이 됐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도 직접 현장

을 찾아 주요 작품 시연 공간을 둘러보고 관람객과 인사를 나누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김 대표는 현장에서 “게임은 기술과 상상력이 만나는 산업이다. 이용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져야 산업이 성장한다”고 말하며 “엔씨도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현장 관심도 지난해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막 첫날 현장을 찾았고, 김민

석 국무총리 역시 엔씨소프트·넷마블·크래프톤 등 주요 부스를 둘러보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대형사 보폭이 줄어든 와중에도 정부 고위 인사의 연이은 방문은 “정책 지원 의지가 강화됐다는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BTB관에서는 해외 투자사·퍼블리셔 상담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며 비즈니스 부문은 안정적으로 운영됐고, 인디게임 전시 ‘인디 쇼케이스 2.0: 갤러리’에는 400여 팀이 참여해 인디 생태계의 폭은 유지됐다.

다만 관람객 체감도에서는 “대형 신작은 엔씨소프트 중심으로 쏠렸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올해 지스타는 참가규모 감소·대형사 부재·정부 관심 확대·엔씨소프트 독주라는 상반된 흐름을 드러내며 내년 ‘지스타2026’의 방향성을 예고했다. 업계는 대형 신작 출시가 예정된 내년 일정에 따라 전시 경쟁력이 정상 궤도로 돌아올지를 관련 포인트로 보고 있다.

/부산=최빛나 기자 vitna@

네이버 ‘클럽’ 창작자 보상 확대

네이버가 숏폼 플랫폼 ‘클럽’에 창작자 보상 모델과 정보 태그 기능을 강화하며 일평균 1000만 이용자 기반의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네이버는 숏폼 플랫폼 클럽에 창작자 편의성을 높이는 기능을 추가하고 콘텐츠 소비 변화에 맞춰 새로운 보상 모델을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클럽은 아웃도어, 패션,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분야의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기반으로 성장해왔으며, 지난 9월부터 일평균 1000만 이용자를 돌파하며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네이버는 클럽 홈피드, 주제피드, 통합검색, 플레이스 등 다양한 지면에서 콘텐츠 노출을 강화해 창작자의 도달 범위를 넓히고 있다. 특히 AI 추천 기반 홈피드에서의 소비가 크게 늘면서 클럽은 지난 8월 출시한 광고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피드형 보상 모델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서비스 내 유료 조회 수를 기준으로 광고 수익을 분배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홈피드에 노출되는 숏폼 영상도 수익 대상에 포함된다. 피드형 보상 모델은 11월 시범 운영 후 내년 중 정식 도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클럽은 플랫폼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정보 태그 기능을 확대한다. 장소태그는 지난해 대비 약 두 배, 쇼핑태그는 약 350% 증가하는 등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며, 이번 업데이트로 방송과 영화 등 엔터테인먼트 태그가 추가된다. 향후 스포츠, 경제 등으로 카테고리를 넓힐 계획이다.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구매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마크도 새롭게 지원해 콘텐츠 신뢰도를 높인다.

AI가 콘텐츠 속 장소나 이미지를 분석해 적합한 태그를 자동 추천하는 기능도 추가되며, 창작자의 기록 편의성 역시 강화된다.

/최빛나 기자

메타빌드, 차세대 복지행정 AI 플랫폼 구축

AI 기반 대국민 복지안내 솔루션 2026년까지 총사업비 30억 투자

인공지능(AI)·연계 전문기업 메타빌드가 복지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차세대 복지 행정 AI 플랫폼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메타빌드는 ‘AI 기반 대국민 복지안내 솔루션 개발 및 실증’ 착수 보고회를 열어 사업 추진 방향과 실증 계획을 공유하고 복지 행정의 AI 전환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가동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부처 협업 기반 AI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총사업비 30억원 규모로 2026년까지 2년간 진행된다.

올해에는 AI 복지 행정 데이터 구축, AI 서비스 설계, AI 인프라와 개발 환경 조성에 나섰고, 내년에는 사회 보장 급여 신청서 및 제출 서류, 개인별 소득·재산·보장·자격 정보 등 약 120만건의 데이터를 토대로 실증을 추진한다.

/김현정 기자 hjk1@

삼성SDS, S-OIL과 3년간 IT 통합운영

데이터센터 포함 IT 인프라·앱 운영

삼성SDS는 지난 14일 서울마포구 공덕동 S-OIL 본사에서 양사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IT 통합 운영(ITO) 계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SDS는 내년 3월부터 2029년까지 3년간 S-OIL의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IT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 전반을 통합 운영·관리하게 된다.

삼성SDS는 국내 최고 수준의 IT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S-OIL의



이준희 삼성SDS 대표(왼쪽)와 류열 S-OIL 사장이 S-OIL IT 통합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삼성SDS

IT 전 영역에 대한 통합 운영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현정 기자

서유석, 최초 연임 도전… “비욘드 코스피5000 시대 책임자”

〈금융투자협회장〉

금투협 회장 선거, 3파전 돌입
서유석, 대관·연속성 내세워 재도전
황성엽, 업계 ‘정통 증권맨’으로 평가
이현승, ‘관료 출신 CEO’로 구도 합류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협회 역사상 첫 연임에 도전한다. 현직 금융투자협회장의 재선 도전은 사실상 전례가 없는 일로, 제7대 협회장 선거는 서 회장과 황성엽 신영증권 사장,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의 ‘3파전’ 양상이 만들어졌다.

서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 선거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업계와 자본시장을 위해 어떤 역할을 더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혼자 심사숙고했다”며 “최근에 서야 회원사 대표님들께 저의 의지를 밝히고 의견을 듣는 과정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취임 이후의 업계 성과를 강조하며 자신이 ‘연속성’에 적합한 후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뉴스

보라고 주장했다.

그는 “3년 전 취임할 때 약속했듯이 저는 회원사의 청지기로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회원사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

며 문제를 같이 해결해 왔고, 업계 활동을 위촉시키는 규제에 맞서 왔으며 자본시장의 파이를 키워 우리 회원사들의 활동 영역을 넓혀 왔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운용을 비롯한 금융투자 업계 전체를 망라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투자 업계와 자본시장 발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협회장 자리의 핵심 역량으로 ‘대관 능력’을 꼽았다. 서 회장은 “저는 지난 3년 동안 협회장 임무를 수행하면서 금융 당국을 비롯한 정부, 여야, 국회의원, 여러 유관기관 및 유력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다. 3년 전 회원사가 선택해 주신 덕분에 저는 한 번 쓰고 버리기 아까운 회원사의 자산이 되었다는 뜻”이라며 “새로운 사람이 이런 관계를 형성하려면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치밀한 논리와 대관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과제들을 누구보다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도 했다.

서 회장은 자신이 ‘비욘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 책임자라고도 자평했다. 그는 “코스피 5000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 이제 한국 주식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오명을 벗고 코스피만을 향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그동안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하여 회원사와 함께 정부 당국, 국회와 호흡을 맞춰왔듯이 ‘비욘드 코스피 5000 시대’의 문을 활짝 열면서 금융투자 업계와 자본시장을 한 단계 레벨업시키고 나아가 한국을 아시아 금융업으로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업무 강도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서 회장은 “금융투자협회장이라는 자리는 시ết말로 은퇴 후 쉬는 자리가 아니라 업계 의견을 경청, 조율하고 국회, 정부, 금융 당국 등과는 전략적으로 교섭해야 하는 정말 치열하게 일하는 자리”라며 “향후 몇 년이 한국 자본시장 역사에 정말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골든타임 때 필요한 것은 리더십의 교체가 아니라 책임감과 강한 추진력

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리더십의 연속성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금투협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19일 오전 10시까지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내달 초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최종 회장은 회원총회 투표를 통해 결정되며,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공식 출마자는 현재 서 회장을 포함해 황성엽 신영증권 사장, 이현승 전 KB운용 대표 등 3명이다.

당초 유력한 여성 후보로 꼽혔던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는 라임펀드 관련 소송 일정이 지연되면서 불출마를 선언했다.

업계에서는 ‘정통 증권맨’인 황 사장과 ‘관료 출신 CEO’인 이 전 대표, 여기에 연임을 시도하는 현직 회장 서유석까지, 세 후보의 업역·관계망·정책 노선이 확연히 다른 만큼 선거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삼양식품, 불닭이 띄운 ‘황제주’… 증권가 “200만원 간다”

3분기 호실적에 목표가 상향
글로벌 수요확대에 CAPA 상승
높은 이익률에 주가고점 흐름 지속

삼양식품의 주가가 17일 138만8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해 11월 15일 53만7000원이었던 주가는 1년 만에 약 2.6배(158.5%)로 뛰었다. 국내 유가증권에서 1주당 가격이 삼양식품보다 높은 회사는 효성중공업(216만6000원)뿐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지목된 내수 업종인 데다, 매출 2조원이 채 되지 않고, 주력 제품도 라면에 집중돼 있는 회사가 주당 100만원이 넘는 이른바 ‘황제주’ 자리를 탄탄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삼양식품의 주가 추이를 놓고 실적과 성장세가 맞물려 돌아간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양식품은 3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6320억원, 영업이익 1309억원을 기록했다. 호실적을 이끈 해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증가



서울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여행객이 K-푸드 인기 끌고 있는 불닭볶음면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

한 510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매출에서 해외가 차지하는 비율이 81%까지 확대됐다. 삼양식품의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4%, 50% 늘었다. 3분기 누적 영업이익(3849억원)은 작년 연간 영업이익(3446억원)을 넘어섰다. 영업이익률은 식품 업계 단연 1위다. 일부 소프트웨어 업체 등을 빼고 나면 이런 이익률을 내는 제조 업체를 찾아보기 어렵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수출 호조세와 전략적 관세 대응, 고환율 효과 등에 힘입어 3분기에도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며 “밀양 2공장 가동률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 수출 확대에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 라면 회사로 한때 시장점유율 70%까지 기록했던 삼양식품은 2012년 출시된 불닭볶음면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2014년 구독자 580만

명이 넘는 유튜버 ‘영국남자’가 불닭볶음면을 먹는 영국 런던 사람들의 반응을 편집해 유튜브에 올리면서 국내에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기가 치솟았다. 영국남자가 올린 영상은 조회 수가 1000만회를 넘어선지 오래고, 소셜미디어에서 불닭볶음면 먹기 챌린지(도전)를 하는 사람들을 접하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 됐다. BTS, 미국의 유명 래퍼 카디비 등 유명 인사들이 불닭볶음면을 먹는 모습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면서 불닭볶음면은 글로벌 상품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증권가는 목표주가를 올려잡고 있다. 손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삼양식품 목표주가를 200만원으로 상향하며 “불닭볶음면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단순 CAPA 증설을 넘어 판매 효율과 수익성이 동반 개선되는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신한·IBK·KB증권도 목표가를 일제히 175만원으로 올렸다.

/허정윤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

어린이 글로벌 대장정
중국서 역사·문화 체험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중국 상해에서 ‘제38회 미래에셋 우리아이 글로벌리더 대장정’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미래에셋 우리아이 글로벌리더 대장정’은 어린이들이 글로벌 리더로서의 기초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해외 탐방 프로그램이다.

‘미래에셋우리아이3역만들기증권자투자신탁G1호’와 ‘미래에셋우리아이친디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2006년 제1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누적 참가인원은 1만 3930여명에 달한다.

초등생 150명 참여 글로벌 프로그램
상해 임시정부·동방명주 등 현장 학습
누적 참가인원 1만 3930여명 달해

이번 제38회 대장정에서는 초등학생 4~6학년 총 150명이 중국 상해에서 11월 6~9일, 13~16일 2회로 나눠 역사와 문화, 산업 탐방을 진행했다.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중국 개항기 역사를 보여주는 와이탄, 상해 푸둥지구 랜드마크인 동방명주를 방문해 역사와 문화를 체험했다.

성대경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연금플랫폼 대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 세대 주역들이 투자와 금융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펀드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 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한투증권, 하와이 거점 확보… 초고액자산가 서비스 강화

‘센트럴 퍼시픽 बैं크’와 MOU
부동산·이민 등 원스톱 자문 확대
수요 늘어난 세컨하우스 투자 대응

한국투자증권은 하와이에 위치한 ‘센트럴 퍼시픽 बैं크(CENTRAL PACIFIC BANK)’와 초고액자산가대상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센트럴 퍼시픽 बैं크는 1954년 설립돼 하와이주내 27개 지점을 운영하는 하와이 최대 은행 중 하나다.

한국투자증권은 초고액자산가 전담 조직 GWM(Global Wealth Management)을 통해 미국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 및 해외 유학, 이민 관련 세무 및 법무 자문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와이 부동산 투자 파이낸싱, 현지 모바일 बैं킹, 송금 및 환전, 하와이 지역 부동산 중개인 및 세무사, 변호사와의 컨설팅 연계 등 크로스보더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세제 혜택과 교육환경이 우수한 해외 국가로의 투자와 이민이 증가하는 가운데, 하와이는 은퇴 후 거주와 자녀 교육을 위한 복합적인 수요를 충족시키는 세컨하우스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하와이 관광 산업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부동산 가치 안정성과 낮은 재산세율, 한국의 높은 상속 및 증여세에 비해 유리한 자산 증여 환경을 갖추고 있다.

김성환 사장은 “한국투자증권의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초고액



지난 13일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오른쪽)과 아놀드 마티네즈 센트럴 퍼시픽 बैं크 행장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자산가 및 패밀리오피스 고객을 위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韓美 관세협상 후속논의… 車·농산물 등 비관세 분야 조율

산업부, 통상추진위원회

기재부·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참석
디지털·플랫폼 규제 조치에 주목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 포함된 통상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관계부처 후속 논의에 착수했다.

공동 설명자료에는 자동차·농산물 등 전통적 시장은 물론 디지털·경쟁·지재권·노동·환경·경제안보 등 비관세 전반을 아우르는 조치가 요구돼, 향후 양국 통상 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산업통상부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기재부·농식품부·국토부·과기부·노동부·기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재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위원회 위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후부·공정위·금융위 등 관계 부처가 대거 참석해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합의내용을 공유하고 부처별 후속조치 사항을 점검했다.

공동 설명자료에 따르면, 양국은 자동차·농산물·디지털 규제·경쟁정책·지

재권·노동·환경·경제안보 협력 등 폭넓은 항목에 대해 합의했다.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 연방안전기준(FMVSS)을 충족한 차량의 국내 수입 절차 간소화, 농업생명공학 승인 절차 효율화, 디지털 규제의 차별 방지,

공정위 조사 절차의 투명성 강화, 특허 법조약 가입 준비, 노동·환경 기준 협력 등은 모두 구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번 후속조치는 국내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자동차 분야만 해도 관세율 조정과 인증 간소화가 병행되면서 미국산 차량의 국내 공급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농산물·식품 분야에서도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승인 심사 기간 단축과 검역 협력이 강화되면서 수입 확대에 이어질 수 있다.

디지털·플랫폼 규제 관련 후속조치도 주목된다. 공동 설명자료에는 한국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망 사영로, 온라인플랫폼 규제, 데이터 국외 이전 정책 등을 정합적으로 관리하기로 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 등과도 직접 연결되는 만큼 향후 제도 조정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재권·경쟁·노동·환경 기준 분야에

서도 국내 법령·절차 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공정위 조사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인정하는 방안은 그동안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다. 특허법조약 가입 추진은 해외 기업의 특허 절차 간소화와 직결되고, 노동·환경 규범 강화는 공급망 전반의 규제 준수 의무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들 후속조치를 토대로 12월 중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한구 통상본부장은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된 만큼, 이제는 비관세 분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한·미 통상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미 FTA 공동위원회 수석대표로서 비관세 협의를 원활하게 매듭지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우미, 과징금 483억

5개 계열사, 총 4997억 매출 확보 공정위, 우미건설 법인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우미’의 대규모 부당지원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483억79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지원행위 주체 역할을 한 우미건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7일 “기업집단 우미 소속 회사들이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인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를 충족시켜 줄 목적으로,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한 5개 계열회사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일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3억 7900만원을 부과하고, 우미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기업집단 우미는 공공택지 아파트 시공·시행을 핵심 사업으로 하는 건설그룹으로, 브랜드 ‘우미 린(Lynn)’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우미는 2010년대부터 LH 공공택지 입찰에 여러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입찰’에 적극 참여해 왔다. 그러나 2016년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지자 LH는 1순위 자격요건을 강화해 ‘주택건설실적 300세대’를 새로 요구했다. 이에 우미는 기존에 입찰에 동원하던 계열사들의 진입 요건을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 2017년부터 12개 아파트 현장에 실적이 없던 5개 계열사를 비주관시공사로 선정했다.

지원 대상 5개 계열사는 총 4997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확보하며 모두 연 매출 500억원 이상 중견사로 성장했다. 공정위는 “대부분 매출과 공사 경험은 전무한 업체들이었고 사실상 이 사건 지원행위만으로 시장에 진입하여 성장했다”고 밝혔다.

지원받은 업체들은 확보한 실적으로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고, 우미에스테이트·심우종합건설은 2020년 실제 2개 택지를 낙찰받기도 했다. 이를 통해 우미그룹은 매출 7268억원, 매출 총이익 1290억원을 추가했다.

특히 우미에스테이트는 총수 2세 2명이 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한 회사로, 설립 4개월 만에 880억원 규모 일감을 제공받았다. 이후 실적을 근거로 공공택지를 낙찰받았고, 2022년에는 두 오너 2세가 보유지분 127억원을 우미개발에 매각, 5년 만에 117억원의 매각차익을 실현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특수 관계인 회사가 아니더라도, 입찰자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농산물 유통체계 개편, 가격변동 줄일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부가 농산물 유통단계의 간소화를 추진한다. 또 유통체계를 온라인도매시장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가격 변동 폭을 줄여 나간다는 게 정책의 골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등 10대 주요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송 장관은 “유통단계를 합리적으로 줄이고 온라인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유통체계를 재구조화해 가격 변동 폭을 줄이겠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 신선한 농산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농축산물 물가 점검과 합리적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또 현장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농식품부

제기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참석자들은 농식품 분야 주요정책 및 수급안정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농식품부와 소비자단체 간 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농산물 유통개선 등 최근 추진 중인 정책과 관련해 공감대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내일 개막

사흘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서

국가 균형성장 전략의 대표 홍보무대인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K-BALANCE 2025’를 슬로건으로 중앙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 등 47개 기관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정책 박람회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은 지방시대 엑스포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전략을 중심으로 자치분권·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한자리에서 체험·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꾸며진다.

특히 올해 처음 마련된 ‘5극3특 미식회’는 유명 셰프들이 지역 식재료를 활용해 개발한 한정 메뉴를 선보여 지역 농수산물의 매력을 알리는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모은다.

전국 지자체의 답례품을 확인하고 현장 기부도 가능한 ‘고향사랑 기부 박람회’, 울산 프로축구·프로농구 구단이 함께하는 ‘스포츠 챌린지’, 반구천 암각화 등 울산 명소를 둘러보는 ‘문화·산업투어’ 등도 운영돼 체험 요소가 한층 강화됐다. 유흥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비롯한 다양한 연사의 ‘오픈 스테이지 특강’도 예정돼 있다.

정책 홍보전시에는 정부 부처와 17개 시·도, 교육청 등 43개 기관이 참여해 균형발전 우수사례를 선보인다. 신안군

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인 ‘햇빛연금’을 비롯해 지방자치 30주년 기념관, 시·도 굿즈관 등 신규 테마관도 마련된다. 지역 특화정책과 주민 체감형 혁신 사례를 콘텐츠 중심으로 구성해 방문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 컨퍼런스는 ▲균형성장 ▲자치분권 ▲지역활성화 ▲국정과제 등 4개 분야에서 총 26개 주제가 다뤄진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전략과 자치분권의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이번 지방시대 엑스포는 지역이 주도하고 국민이 주인공이 되는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여정의 공식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직접 찾아 균형성장을 통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보고, 듣고,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기후부, 美서 ‘녹색기술 투자유치 설명회’

국내기업 미국시장 진출 기반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달 18일(현지 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제3차 K-그린데이 녹색기술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서니베일에 위치한 ‘플러그앤플레이 테크센터’에서 열리는 이 설명회는 녹색산업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미국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미국은 민간투자 규모가 가장 큰 시장으로 환경·에너지 전환 분야 창업 생태계가 활발해 기술투자 가능성이 높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3년부터 실리콘밸리에서 K-그린데이 설명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플러그앤플레이 실리콘밸리 11월 서밋’과 연계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설명회에는 미국 벤처캐피탈, 투자자, 현지 진출 국내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국내 녹색기술의 성장 가능성과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참가기업 공모를 통해 12개사를 선정했으며, 미국 투자시장 정보, 자료 작성 방법, 발표 기술 등을 중심으로 집합 교육과 기업별 맞춤 교육을 제공해 발표 역량을 강화했다.

참가기업들은 수소에너지 생산·모듈형수전해시스템(라이트브릿지), 지능형 누수관리 시스템(위플렛) 등 미국 투자자 관심이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현장에서의 투자 연계 가능성이 주목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미국 휴스턴 해양 기술 전시회 2026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2026

개최 기간 : 2026년 5월 4일 (월) ~ 2026년 5월 7일 (목)

개최 장소 : 미국 휴스턴 / NRG Center

OTC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는
매년 5월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해양 플랜트 전시회입니다.
이 전시회는 오일, 가스, 에너지 분야의 주요 기업들이 참가하며,
최신 기술 동향과 혁신적인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주요 구성 및 프로그램

- 유정기기 및 오일가스 수송 관련 제품
- 조선 및 해양플랜트 기자재
- 석유 및 가스 운송 장비
- 탐사장비
- 밸브 및 안전 장비
- 해저 파이프라인 및 플로우라인 기술
- 기술 발표 및 세미나
- 워크샵 및 기술 교류 프로그램

2026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STEERING OFFSHORE ENERGY INNOVATION INTO THE FUTURE

박람회 및 전시회

NO	행사 명	개최 기간	국가 및 도시
1	엠티엠 메탈 월드 엑스포 [MTM EXPO SHANGHAI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4일	중국 / 상하이
2	상해 조선해양기술 박람회 [MarinTEC CHINA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5일	중국 / 상하이
3	상해 국제 금속 및 야금 박람회 [Metal World Expo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4일	중국 / 상하이
4	2026 국제 금형 주조 다이캐스팅 전시회 [EUROGUSS]	26년 1월 13일 ~ 1월 15일	독일 / 뉘른베르크
5	와이어/튜브 전시회 2026 [Wire&Tube Düsseldorf 2026]	26년 4월 13일 ~ 4월 17일	독일 / 뒤셀도르프
6	휴스턴 오프쇼어 박람회 2026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2026]	26년 5월 4일 ~ 5월 7일	미국 / 휴스턴
7	고기능 금속 전시회 2026 [Material JAPAN 2026]	26년 5월 13일 ~ 5월 15일	일본 / 오사카
8	밸브 월드 엑스포 캘거리 2026 [Valve World Expo Calgary 2026]	26년 6월 3일 ~ 6월 4일	캐나다 / 캘거리
9	상해 다이캐스팅 산업 박람회 2026 [CHINA DIECASTING 2026]	26년 7월 15일 ~ 7월 17일	중국 / 상하이
10	슈투트가르트 국제 금형 박람회 2026 [Moulding Expo 2026]	26년 9월 14일 ~ 9월 18일	캐나다 / 캘거리
11	상해 국제 와이어 및 케이블 박람회 2026 [Wire&Tube Shanghai 2026]	26년 9월 21일 ~ 9월 24일	중국 / 상하이
12	어반스틸 엑스포 2027 [USE 2027]	27년 4월 20일 ~ 4월 23일	독일 / 뒤셀도르프



고객의 일정과 목적에 최적화된
맞춤형 일정 구성 및 솔루션 제공



글로벌 박람회 및 전시회
에어텔 및 입장권 예약



국가별 비자 신청 대행



개별여행, 인센티브 관광
MICE 등 여행 솔루션 제공

www.sn miles.com

기업 전문 여행사, 에스앤마일즈



QR코드 스캔
카카오톡 채널 연결
등록후 상담원연결 가능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20 S&M빌딩 6층

문의 : 강성민 차장 T. 02-3487-2800 F. 02-583-4135 E. smkang@snmiles.com

전북도, ‘올림픽데이런’으로 하계올림픽 유치 의지 알려

‘올림픽데이런 2025 in 전주’ 성료
지방서 첫 개최… 6000명 참가
스포츠-문화 결합된 참여형 축제
운영경험 등으로 유치 기반 마련

전북특별자치도는 ‘올림픽데이런 2025 in 전주’가 16일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6000명의 참가자와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서울 중심의 스포츠 행사를 넘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연대도시 전략의 상징적 출발점이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전북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지방도시의 역량을 전국에 선보이는 계기가 됐다.

올림픽데이런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공식 인증한 국내 유일의 올림픽 행사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대한체육회, 전주시가 공동 주관하며, IOC 창설일(6월 23일)을 기념해 올림픽 정신을 확산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서울에서만 4차례 개



16일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올림픽데이런 2025 in 전주’가 열린 가운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경기를 치르고 있다.

최됐으며,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지방에서 열린 역사적 무대다.

대회는 하프코스, 10km, 5km 세 종목으로 구성돼 오전 9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접수 시작 직후 6000명 참가자 전원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20~40대 청년층이 90%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전주의 활기찬 도시 이미지와 국제 스포츠 행사 운영 역량을 함께 보여준 자리였다.

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해 전북자치도는 전주시, 경찰청, 대한체육회 등과

5차례 협의회를 열고, 현장 실습과 합동 점검을 병행했다. 경찰과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 380여 명이 교통과 안전 관리를 담당했고, 전북대학교 간호학부·운동처방학과, 전주대학교, 완주소방서 등과 연계한 의료 대응 체계를 마련해 참가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켰다.

문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부대행사로는 올림픽 종목 체험 부스, 팬사인회, 완주 인증 포토존 등도 운영돼 참가자 만족도를 높였다. 교통 통제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사전 안내도 철저히 이뤄졌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러닝 행사를 넘어 ‘K-스포츠’와 ‘K-문화’가 결합된 전국민 참여형 축제로 발전했다. 전국에서 모인 참가자들이 전주를 함께 달리며 올림픽 유치에 대한 열망을 공유했고, 이는 전주의 문화적 경쟁력과 국제 스포츠 도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도는 이번 대회 운영 경험과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국제 스포츠 대회 유치에 필요한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져갈 계획이다. 전주는 문화·관광·스포츠 인프라를 고루 갖춘 도시로서, 향후 하계올림픽 유치에 걸맞은 준비된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올림픽데이런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도민의 열망과 전북의 비전을 전국에 알리는 출발점”이라며 “국민과 함께 그 꿈을 향해 나아갈 것이며, 전북이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데 더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전북=정훈 기자 taiji181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

RTD 명칭 ‘부산커피 맛썰’ 결정

부산시가 부산을 대표할 커피 음료의 명칭을 확정했다.

시는 부산형 커피 음료(RTD) 명칭을 지난 14일 ‘월드챔피언 부산커피 맛썰’로 최종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RTD(Ready To Drink)는 바로 마실 수 있도록 제조된 캔·병·팩 형태의 음료를 뜻한다.

최종 명칭은 부산 사투리 ‘맛썰’에서 유래했다. 단순한 동의 표현을 넘어 커피 맛과 품질의 확산을 담은 커피 음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울산시

‘자연주의 정원’ 우수디자인 선정

울산시는 태화강 국가정원 내 ‘자연주의 정원’이 산업통상부 주최 ‘2025 우수디자인(Good Design) 상품 선정’에서 공간·환경 디자인 부문 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선정은 1985년부터 매년 진행되며 제품·환경·건축·패션·포장 등 27개 분야에서 우수 디자인 상품에 정부 인증을 부여한다. 올해는 기업과 공공기관이 출품한 1030점 가운데 81점(7.5%)이 본상을 받았다.

수상작인 자연주의정원은 1만 8000㎡ 면적에 조성된 공간으로, 세계적인 정원 디자인어 피트 아우돌프가 설계한 아시아 최초의 공공정원이다. 뉴욕 하이라인 파크와 시카고 루리가든을 만든 그의 작품이다.

/울산=손병호 기자 metrobusan5@

대구시

오늘부터 ‘국제기계산업대전’

대구시는 기계·첨단소재·부품산업 분야의 최신 기술과 동향을 볼 수 있는 ‘2025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이 오는 18~21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전시에는 14개국 267개 사가 707개의 부스를 운영한다.

대구국제자동화기기전과 국제첨단소재 부품산업전을 통합했으며, 디지털 전환(DX) 및 인공지능 전환(AI) 기술 등 최신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구국제자동화기기전에서는 공장자동화, 자율제조, 스마트팩토리 구현을 위한 공작기계, 설비, 제어기기 등을 전시한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창녕군

‘우포늪 생명길 걷기대회’ 성료

창녕군은 지난 15일 우포늪생태관 야외무대와 우포늪 일원에서 군민과 관광객 4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6회 우포늪 생명길 걷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창녕군새마을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2010년부터 매년 가을 열리는 창녕군 대표 군민 참여 행사로, 영남권 최초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우포늪의 생태 가치를 알리고 자연 속에서 건강과 힐링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창녕(경남)=이도식 기자

영주시, 겨울철 한파 선제대응 나서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시행 제설장비 188대, 제설제 880톤 확보

영주시가 다가오는 혹한기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 대책에 돌입했다. 폭설과 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 대응 전략이 본격 가동된다.

시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11월 15일~2026년 3월 15일)에 맞춰 ‘2025~2026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대책은 기후변화로 잦아진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 체감형 안전관리와 현장 대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시는 대설 특보가 발효되면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부단제장

직보 체계를 통해 상황 판단과 현장 대응을 신속하게 진행한다. 읍면동에 설치된 적설계 11개소와 재난영상 CCTV, SNS 채널을 활용해 실시간 기상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행정안전부·경상북도 등 유관기관과의 재난정보 공유망도 함께 운영된다.

제설작업을 위해 트랙터 158대를 포함한 제설장비 188대와 제설제 880톤을 사전에 확보했으며, 주요 도심 구간에는 자동 염수분사장치 15개소가 가동돼 결빙 사고를 예방하게 된다.

한파에 대비한 보호대책도 촘촘히 마련됐다. 시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164곳을 한파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난방비를 지원하는 한편, 한랭질환자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해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에 나선다.

/영주(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울진군, 철도연계 ‘도보 관광지’ 주목

금강소나무숲길 등 인기

동해선 철도 개통으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경북 울진군이 사계절 걷기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다. 금강소나무숲길, 해파랑길, 동서트레일 등 테마형 트레킹 코스가 철도 관광과 결합하며, 힐링과 회복을 원하는 여행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경북 울진군이 ‘걷는 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월, 동해선 철도의 개통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서 반나절이면 닿을 수 있는 지역이 되면서, 자연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도보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울진 전역에 조성된 걷기길은 단순한 트레킹 코스를 넘어 자연 속 치유와 문화 체험이 가능한 복합형 힐링 공간으로 운영된다. 여행객들은 숲과 계곡, 해안길과 온천이 어우러진 울진만의 풍경 속을 걷는 경험을 통해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누리고 있다.



울진군은 수도권에서 반나절이면 닿을 수 있는 지역이 되면서, 자연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도보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금강소나무 숲 경관.

대표적인 걷기 좋은 길로는 금강소나무숲길(천년 숲이 전하는 고요한 치유), 왕피천 생태탐방로(원시 자연을 만나는 생명의 길), 해파랑길(동해를 따라 걷는 낭만의 해안선), 동서트레일(바다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장거리 여정), 신선계곡·덕구계곡(온천과 자연이 어우러진 힐링 코스), 평해 명품 맨발걷기길(자연을 발로 느끼는 감성 트레일)이 있다.

/울진(경북)=손기섭 기자

신안군, 태양광·양식장에 천일염산업 위기

염전 가동면적, 14년 만에 35%↓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이 태양광발전소와 양식장 등에 잠식되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전남 신안의 천일염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17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신안의 소금제조업은 726개소(1973ha)에서 허가를 받았으나 이 중 124개소(247ha)에서 휴업 등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염전 가동면적은 지난 2011년에 비해 3분의 1로 급속히 감소했다. 지난 2011년 2662ha에 달하던 염전면적은 올해는 1726ha로 14년만에 35% 감소했다.

또 2015년 4월부터 2025년 8월말까지



신안천일염.

폐전이나 폐업한 염전은 322개소에 면적만도 889ha에 이른다. 10년 만에 여의도 면적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사라진 염전 자리에는 태양광발전소와 새우양식장 등이 들어섰다. 폐전·폐업한 염전의 82%(733ha)는 태양광이 차지했으며, 13%(120ha)는 양식장으로 변했다.

/신안(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부산시,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 시행

스마트시티부산 주식회사와 구축

부산시는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사업법인과 함께 미래 스마트라이프 실현을 위한 핵심 기반 구축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사업 시행을 총괄하는 스마트시티부산주식회사는부산시·한국수자원공사·부산도시공사의 공공부문과 엘지씨엔에스(LG CNS)·신한은행·현대건설 등 11개 기업으로 구성된 민간 컨소시엄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사업법인은 향후 5년간 국가시범도시 예정지 내 선도지구 조성하고 다양한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로봇 혁신 기술을 우선 도입해 교통·생활·에너지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구축 5년, 운영 10년을 포함한 총 15년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매년 김포족 늘고 수출도 증가세… ‘김치’ 효자상품 우뚝

〈김장포기족〉

국내 포장김치 시장 규모 매년 확대
2023년 6560억, 2년 간 22% ↑
대상·CJ제일제당 등 할인판매

작년 수출액 2387억 ‘역대 최대’
세계 김치시장 규모 6.7조 추산

김치 시장의 축이 안팎으로 재편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직접 담그기보다 필요한 만큼 사먹는 ‘김포족(김장포기족)’이 급증하며 포장김치 수요가 꾸준히 커지고, 해외에서는 K-푸드 열풍 속 김치가 대표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으며 성장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식품업체가 포장김치 사업을 국내외로 동시에 키우며 시장 주도권 경쟁에 나선 이유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5년 소비자 김장 의향 및 채소류 공급 전망’에 따르면 올해 포장김치를 구매하겠다는 비율은 32.5%로 전년(29.5%) 대비 3%포인트 증가했다. 필요한 양만 살 수 있다는 점(39.5%), 번거로움 회피(33.1%) 등이 주요 이유다. 집에서 김장을 하는 비율은 62.3%지만 지난해(64.5%)보다 줄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김치 매대에서 고객이 배추김치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이에 따라 국내 포장김치 시장 규모는 2021년 5370억 원에서 2023년 6560억 원으로 22% 성장했다. 상위업체 점유율도 견고해 대상 38.9%, CJ제일제당 36.7%로 양강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늘어난 ‘김포족’ 공략을 위해 식품업체는 연중 최고 성수기인 김장철 마케팅을 본격화했다.

대상 정원e샵은 ‘2025 종가 김장대

전’을 열고 포장김치와 김장재료를 최대 15% 할인 판매한다. CJ제일제당은 서울·경상도·전라도의 맛을 살린 ‘지역 특화 김치’ 3종을 네이버에서 단독 판매한다. 풀무원 올가홀푸드는 원재료의 95% 이상을 유기농으로 구성한 프리미엄 김치 4종을 출시했다.

김장을 하려는 소비자를 위한 행사도 풍부하다. 동원F&B는 김장체험 행사인 ‘양반김치 김장투어’를 다음달 12일까지 운영한다. 1999년 시작된 국내 최

‘삼양 3세’ 94년생 전병우 전무로 등판

삼양라운드스퀘어, 정기 임원인사
불닭브랜드 글로벌 프로젝트 등 총괄

삼양라운드스퀘어가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하며 전병우 삼양식품 최고운영책임자(COO, 상무·사진)를 전무로 승진시켰다. 전 신임 전무는 1994년생으로 김정수 삼양라운드스퀘어 부회장의 장남이자 고 전준용 명예회장의 장손으로, 그룹의 3세 경영 전면 등판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전 신임 전무는 불닭브랜드 글로벌 프로젝트와 해외사업 확장을 총괄하며 삼양식품의 해외 성장세를 견인해왔다. 특히 중국 자싱공장 설립을 주도해 글로벌 생산거점을 구축하고, 미국 코첼라(Coachella) 등 현지 대형 페스티벌을 활용한 공격적 마케팅,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 전



락 등을 통해 불닭 브랜드의 글로벌 메가 브랜드화에 핵심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다.

이번 인사에서는 조직 내 주요 사업 부문의 실무 책임자들도 대거 승진했다. 하현욱 전략부문장(삼양라운드스퀘어)과 강석환 Digital Growth부문장, 김용호 한국영업본부장, 신경호 유럽법인장 등 4명이 상무로 신규 선임됐다.

삼양라운드스퀘어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회사의 중장기 방향성과 리더십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메가 브랜드인 불닭의 성장을 공고히 하고 미래 지향적 경영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SPC삼립, 무신사와 손잡고 팝업 오픈

‘삼립호빵X무신사 무진장’ 운영

SPC삼립이 패션 플랫폼 ‘무신사’와 손잡고 20일부터 23일까지 무신사 스토어 성수 대림창고에서 ‘삼립호빵X무신사 무진장’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팝업은 MZ세대에게 인기 있는 패션 플랫폼 무신사와 함께 겨울 대표 간식인 삼립호빵을 새롭게 감각적인 방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무신사의 연중 최대규모 할인 행사인 ‘무신사 무진장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운영된다.

무신사 스토어 성수 대림창고에서는 호빵 찜기 ‘호썸이’를 모티브로 한 ‘대형 호썸이’ 부스가 운영된다. 마치 대

형 호빵 찜기 안에 들어간 듯한 공간 연출과 함께 내부에는 단팥·야채·피자 등 삼립호빵의 스테디셀러를 형상화한 모형이 전시된다.

앞서 진행된 ‘무신사X호빵 스페셜 패키지 판매 기획전’에서 무신사 온라인 단독으로 선보인 ‘호빵 키캡 키링’은 준비된 수량이 모두 완판되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이번 팝업에서는 단팥호빵 형태를 그대로 살려 호빵의 쫄깃한 식감을 질감으로 구현한 ‘스트레스볼’ 등 이색 굿즈를 만나볼 수 있다. 방문 인증샷을 남기는 고객에게는 ‘1입 포장 호빵’, ‘호썸이 굿즈’ 등의 다양한 경품을 담은 ‘갯차(뽑기)’ 참여 기회도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쿠팡, 한우·전복·캐비아 등 고급 식재료 새벽배송 선택

23일까지 ‘프리미엄 프레시 위크’

쿠팡이 연말을 맞아 프리미엄 프레시 위크를 열고 고품질 식재료를 새벽배송으로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달 17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프리미엄 프레시는 지난 2월 쿠팡 로켓프레시가 선보인 고급 신선식품 전문 서비스다.

프리미엄 프레시 위크는 연말 홈파티와 가족 중심의 상차림 트렌드에 맞춰 기획됐다. 프리미엄 한우 1+, 활탐스터, 활전복, 캐비아 등 고급 수산물, 장인의 치즈, 고급 버터, 수제 디저트 등 약 300종의 고급 식재료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한우는 우미우·청담새벽집·설로인, 수산물에는 바이킹마켓·완도맘·아라보감, 디저트는 비스퀴테리 엠오·연리희재·위고에빅토르, 간편식은 해운대 암소 갈비집·쵸이닷·수퍼(SOUPER) 등 15개 이상의 고급 브랜드가 참여한다.

행사 기간 프리미엄 프레시 전 품목에 대해 최대 20% 즉시 할인이 적용되며, 제휴 카드 결제 시 최대 20% 추가 할인도 제공된다.

쿠팡 관계자는 “프리미엄 프레시 위크는 고객이 특별한 날을 더욱 품격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행사”라며 “프리미엄 프레시만의 엄선력과 빠른 배송 서비스를 통해 고객 만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SSG닷컴-이마트 맞손… 신선식품 50% ↓

신선도 불만족시 즉시 환불

SSG닷컴이 이마트의 신선식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온라인 장보기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품질 신뢰도를 높인다.

SSG닷컴은 이달 19일까지 3일간 제철 과일과 축·수산물 등 신선식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신선 특가전을 진행한다.

SSG닷컴은 이마트와 협업해 행사 대표 상품으로 제철 신선식품을 전면으로 내세웠다. 조생햇굴, 남해안 이력제굴, 한우 국거리 불고기, 달링다운 와규 불고기, 동물복지란, 딸기, 엔비사

과 등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고객이 행사 상품 신선도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즉시 환불받을 수도 있다. 쓱닷컴은 전국 100여곳의 이마트 후방 물류시설에서 출고되는 상품에 신선보장제도를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SSG닷컴 김현성 영업1담당은 “이마트와 시너지를 통해 상품·가격·배송 등 핵심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쓱닷컴 이마트몰은 신선한 식품을 빠르게 배송해주는 온라인 장보기에 최적화된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손종욱 기자

년 폴란드 업체 chPN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크라쿠프 공장 신설을 추진 중이다. 유럽 전략 기지로 삼아 설립되는 크라쿠프 김치 공장은 대지 면적 6613㎡(2000평) 규모로, 총 150억여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연간 3000t 이상의 김치를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CJ제일제당은 약 50개국에 김치를 수출하며 베트남 현지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기록 중이다. 북미 공장 인수, 배추 품종 ‘그린로즈’ 도입 등 공급망 안정 전략도 병행한다. 풀무원 역시 익산 글로벌 김치 공장을 기반으로 월마트 등 미국 4000여개 매장에서 판매 중이며 수출 전문 기업 인수를 통해 글로벌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김치 소비 트렌드 변화와 글로벌 김치 수요 확대에 따라 식품업체가 포장 김치 사업 전략을 새롭게 짜는 분위기”라며 “내수·수출 모두 성장 가능성이 열려 있어 기업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요 증가 폭에 비해 글로벌 공급망은 아직 초기 단계라 선점 효과가 큰 시장”이라고 덧붙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CU가 하와이 현지 음식을 기반으로 한 메뉴 10종을 선보인다.

/CU

CU 하와이 1호점 오픈기념 현지 먹거리 10종 선택

CU가 미국 하와이 1호점 오픈을 기념해 하와이 현지 대표 음식을 편의점 먹거리로 재해석한 메뉴 10종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CU는 지난 12일(현지 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다운타운에 1호점을 열었으며, 오픈 첫날 1000명, 이튿날 2000명의 객수를 돌파하는 등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CU는 하와이 오픈을 기념해 국내에서도 하와이의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간편식, 디저트, 주류 등 다양한 상품들을 선보인다.

간편식은 로코모코, 무스비 등 하와이 현지 메뉴 6종을 재현했다. 대표 상품인 하와이안 로코모코 도시락과 스왑 무스비 주먹밥을 비롯해, 갈릭 쉬림프에서 착안한 쉬림프 김밥, 코코넛 쉬림프 버거, 갈릭 쉬림프 파스타와 하와이 안 떠먹는 피자도 출시한다.

디저트는 하와이 특유의 단짠한 맛을 살린 솔트 브라우니와 더블 마카롱 2종을 선보인다. CU는 이달 말까지 하와이 간편식과 디저트 8종을 토스페이로 결제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손종욱 기자

광동제약, 박상영 사장 전진배치… 지속가능 성장 속도 낸다

〈경영총괄〉

연구개발 등 전문성 기반 인사
박 사장, CSEO 등 주요 보직 역임
경영현안 총괄… 부문간 협업 주도



특히 박상영 부사

장이 경영총괄 사장
으로 업무 영역을 확
대하며 시장과의 소
통이 강화되고 기업
신뢰도가 한층 높아
질 것이란 기대가 모인다.

박상영 사장은 서울경제신문 기자 출신으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10여 년간 출입하며 제약산업에 대한 풍부한 이해도와 경험을 쌓았다. 언론계를 떠난 후수도약품 총괄부사장과 회장비서실 사장, 홍보마케팅 전문 회사인 우리들씨앤알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경영 감각과 소통 역량을 겸비한 리더로 조직 내 입지를 다져왔다.

지난 2011년 광동제약에 합류한 이후에는 최고안전환경책임자(CSEO)와 감사, 법무, 언론 등을 담당하는 커뮤니케이션실장을 겸임하며, 회사의 경영 투명성과 대외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특히 각 사업장의 안전·환경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ESG 경영 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조직 내 협업과 소통 문화를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성과는 최근 자본시장에서 강조하는 ‘투명 경영’ 기조와 맞물려 주주 신뢰를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번 승진을 통해 박 사장은 회사의 주요 경영현안을 총괄하고 부문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광동제약은 “경영총괄 사장직 신설이 중장기 성장 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해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동제약은 이와 함께 회사는 의약연구개발과 인사가획 등 핵심 부문에 전문성을 갖춘 리더를 전진 배치했다.

의약연구개발본부 배기룡 상무이사를 전무이사로, 정대석 인사기획부문장

을 상무이사로 각각 승진 발령했다. 배전무는 GSK, MSD 등 주요 글로벌 제약사와의 파트너십 구축과 희귀의약품·유전자치료제 도입을 주도하며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고 회사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강화해왔다.

정대석 상무이사는 그동안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개편과 조직문화 개선을 추진하며 투명한 인사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킨 인물이다. 회사는 이번 내부 승진 인사를 통해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연구개발 기반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내부 결속력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각 부문의 전문성과 성과를 토대로 조직의 실행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 기반을 한층 견고히 다지는 것이 이번 인사의 핵심 방향”이라며 “안정된 경영 기조 아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신제품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홀리데이 한정판

아모레퍼시픽은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에서 ‘2025 홀리데이’ 한정판(사진)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한정판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따뜻한 행복을 전하는 설화수만의 브랜드 감성을 담아 겨울의 고요함 속에서 피어난 매화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특히 진설크림 리치 설화 에디션은 눈 덮인 겨울 추위 속에서도 영롱하게 피어난 매화에서 영감을 받았다. 또 연말과 새해를 맞아 소중한 분께 달항아리의 고귀함과 특별함을 전달할 수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세포·유전자 분야 기술역량 입증

람다바이오로직스 ‘바이오텍 혁신상’ ODISEI 기반 비임상 패러다임 제시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자회사 및 파트너사인 람다바이오로직스(Lambda Biologics)가 글로벌 바이오 분야의 권위있는 시상식 ‘바이오텍 브레이크스루 어워드(BioTech Breakthrough Award)’에서 ‘세포 및 유전자 치료 혁신(Cell & Gene Therapy Innovation)’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BioTech Breakthrough Award는 미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제 바이오·생명공학 기술 평가 프로그램으로, 신약 개발, 진단 기술, 연구도구,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등 바이오 전 분야에서 뛰어난 혁신을 이룬 기업들을 선정한다.

람다바이오로직스는 인간 장기 모델을 고도화한 오가노이드 플랫폼을 기반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개최된 ‘바이오텍 브레이크스루 어워드(BioTech Breakthrough Award)’ 시상식에서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이경진 상무(왼쪽)와 안드레 거스 람다바이오로직스 CEO(오른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으로 차세대 세포·유전자 치료제(CG-T)의 예측 개발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고, 바이오산업 내 중개 연구(Translational Research)를 고도화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이번 수상은 오가노이드사이언

스가 보유한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ATORM) 기술과 신소재·신약 효능 평가 플랫폼(ODISEI)이 기반이 됐다.

ODISEI는 암 오가노이드 효능평가 플랫폼 ‘ODISEI-ONC’를 중심으로 면역세포 공배양, 중앙 미세환경(TM-E) 재현, 환자 맞춤형 오가노이드 분석 등 실제 인체 조건을 높은 정밀도로 모사하는 기술이 강점이다. 특히 국내 최초 상용화에 성공한 평가 솔루션으로, 동물실험 의존도를 대폭 줄이면서 실제 환자 반응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차세대 비임상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인정을 받았다.

안드레 거스(Andre Gerth) 람다바이오로직스 CEO는 “최근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표준화된 오가노이드 모델링(Standardized Organoid Modeling·SOM) 센터’를 출범시키며 오가노이드 기반 질병 모델링을 차세대

연구 인프라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흐름과도 맞물린다”며 “앞으로도 중개 과학과 개인 맞춤형 의학 발전에 기여해 글로벌 생명과학 생태계에 혁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이번 수상으로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오가노이드 기반 플랫폼이 비임상-임상 전 단계의 표준 도구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관계자는 “동물 실험 대체 기술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람다바이오로직스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람다바이오로직스는 ATORM의 임상 유럽과 ODISEI 플랫폼을 전 세계 제약사, 병원, 연구기관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대웅제약, ‘K-AI 신약개발 사업’ 참여

박성수 대표 “신약 개발 생태계 기여”

대웅제약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K-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 모델개발 사업’의 공동 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국내 신약개발 전 주기 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대웅제약은 ‘역이행 연구 설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AI SW)’ 개발 과제에 참여한다. 이번 과제는 삼성서울병원이 주관하며 강북삼성병원, 대웅제약 등 병원 및 제약기업이 함께 하는 다기관 공동연구 체계로 운영된다.

대웅제약은 향후 4년간 항암·대사성 질환 연구에서 확보한 비임상 데이터를 AI 모델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한다. 또한 자사 신약센터에서 생산되는 연구 데이터를 활용해, 개발된 AI 소프트웨어를 실제 연구에 적용하는 실증 작업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과제를 통해 대웅제약은 AI를 활용해 동물실험 모델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고, 비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임상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실제 모델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연구 현장에서 직접 AI 기술의 발전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대웅제약의 연구개발 역량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AI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 신약 개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엘비엠, 근로계약 등 인사제도 재정비

인력 충원 등 전사적 개선 계획 밝혀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엘비엠이 근로환경 논란 이후 인력 충원, 근로시간 관리 강화, 안전보건 시스템 정비 등을 포함한 전사적 개선 계획을 내놔다. 강관구 대표는 “근로환경을 근본부터 재점검하겠다”고 밝히며 재발 방지 의지를 강조했다.

회사 측은 우선 HR 전문가 영입을 통해 근로계약 구조와 인사제도 전반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수습 기간 운영 방식 및 계약 전환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외부 컨설팅을 통해 정규직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매장 인력 공백을 즉시 지원하는 별도 조직을 운영하고, 업무량이 많

은 시기에는 기존보다 약 1.5배 수준으로 인력을 확보해 근로시간 준수 체계를 마련한다.

근무기록 관리 방식도 강화된다. 스케줄표와 연장근무 기록에 더해 매장 마감 보안시스템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본사가 다음날 실제 근무 종료시간을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문인식 기반 ERP를 도입해 실시간 근무기록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안전보건 체계도 보강한다. 안전보건 전담 담당자를 두고 교육과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직원 상해보험 가입과 산재 원인 분석을 병행해 산재 발생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애경산업 ‘루나’ 롱래스팅 버블링 썸 글로스

애경산업은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루나가 무신사에서 고평택·고점도 입술 제품 ‘롱래스팅 버블링 썸 글로스’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루나 롱래스팅 버블링 썸 글로스는 ‘슈퍼 사인 포뮬라’를 처방해 어느 각도에서든 빛나는 입술을 연출할 수 있다. 멘톨 성분 함유로 입술에 자연스러운 볼륨과 입체감까지 더해준다. 또 쏙쏙한 제형이 입술에 밀착돼 오랜 시간 유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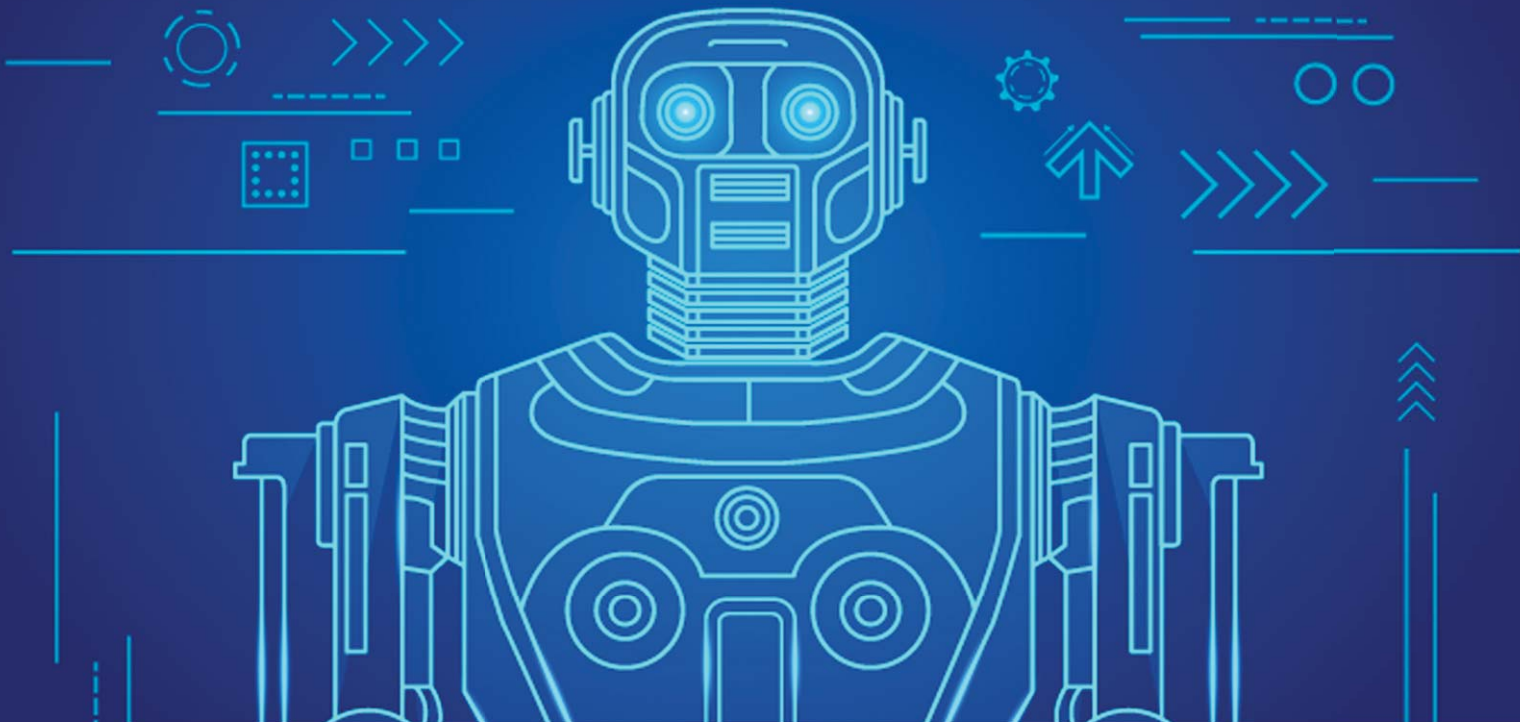
내용물을 풍부하게 머금은 ‘대형 틱’을 탑재해 여러 번 덧바를 필요 없이 한 번만으로도 간편하게 사용 가능하다.

/이청하 기자

2025 뉴테크놀로지 포럼

피지컬 AI가 바꾸는 산업지형

| 일시 | 2025년 11월 19일(수) 오후2시 | 장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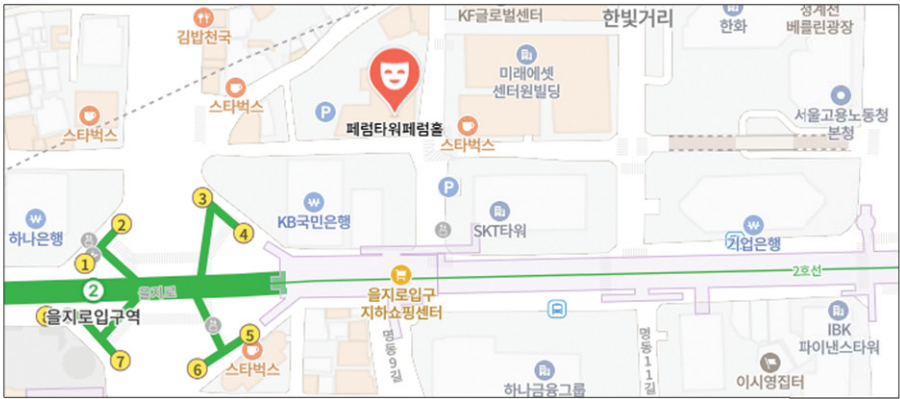


● 행사개요

행 사 명 2025 뉴테크놀로지 포럼
주 제 피지컬 AI가 바꾸는 산업지형
일 시 2025년 11월 19일(수)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장 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주 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등 록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문 의 뉴테크놀로지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오시는 길

페럼타워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19
(2호선 을지로입구역 3번 출구 도보 3분)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10	〈축사〉 조풍연 한국 SW-ICT 총연합회장(메타필드 대표) 유태준 마음AI 대표 겸 한국피지컬AI협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10~14:40	유태준 마음AI 대표 겸 한국피지컬AI협회장 : 피지컬 AI 국가 대전환 전략
강연	14:40~15:10	고태봉 iM증권 리서치본부장 : 인류역사상 첫 무인화혁명, Physical AI
	15:10~15:40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 : AI의 모든것: AI 교육부터 AI 클라우드 사례
	15:40~16:10	양수열 클라우드웍스 CTO : 피지컬AI 시대, VLA 모델 발전을 위한 데이터 현황과 과제
	16:10~16:40	김하늘 에이인텔리전스 이사 : Agent 시대 AI 보안의 표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노비즈협회, 중·선도기업 방문해 벤치마킹

이노비즈협회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중국 선전에서 ‘중국 혁신산업 선도기업 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 드론, 전기차, 스마트물류 등 미래 유망산업 분야의 선도기업을 직접 방문해 벤치마킹했다고 17일 밝혔다. 연수에는 정광천 협회장(오른쪽 네번째)과 임형택 글로벌위원장을 비롯해 이노비즈기업 관계자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이노비즈협회



중기중앙회, 韓-日 2세 경영인 간담회 열어

중소기업중앙회는 KBIZ 차세대 CEO스쿨 심화과정 제2기 졸업생들이 지난 13일 일본 오사카부 중소기업가동우회를 찾아 한·일 양국 2세 경영인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간담회는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차세대 CEO스쿨 심화과정’의 졸업연수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중기중앙회



캠코, 경·공매 정보플랫폼과 공매시장 활성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14일 서울시 강남구 캠코 양재타워에서 민간 경·공매 정보 플랫폼 총 9개사와 함께 ‘공매데이터 기반 공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석한 캠코 국유재산본부 총괄이사(오른쪽 네 번째)와 경공매 정보플랫폼 기업 관계자들이 협약식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캠코



유투브-선플재단, ‘잠시만요 캠페인’ 공동선언

유투브와 선플재단은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잠시만요 캠페인 공동 선언 및 시상식을 열고 건강한 온라인 문화 확산 의지를 다졌다고 17일 밝혔다. (왼쪽부터)황성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총괄,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투브



지씨셀, ‘세계 제대혈의 날’ 맞아 기념행사 열어

지씨셀은 지난 14일 세계 제대혈의 날을 맞아 경기 용인에 위치한 셀센터에서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대혈의 의학적 가치와 보관의 중요성을 알리고, 제대혈 기증 및 보관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씨셀

이용배 “3분기 수주잔고 29.6조… 협력업체 덕분”

〈현대로템 대표이사〉

‘2025 현대로템 파트너스 데이’
탄력적 공급망 체계 구축하고
미래사업 성공 함께 이룰 것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 사장은 “올해 현대로템은 국내외 활발한 수주 활동을 통해 3분기 기준 수주잔고 29조 6000억원을 달성했다”며 “이러한 성과는 모두 이 자리에 계신 협력업체 대표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며 현대로템의 성과는 곧 협력업체의 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17일 현대로템에 따르면 이용배 사장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제주 서귀포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에서 열린 ‘2025 현대로템 파트너스 데이’에서 “협력업체 여러분과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이어가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용배 대표이사(셋째줄 왼쪽 열세번째)와 현대로템 주요 임원들이 ‘2025 현대로템 파트너스 데이’에서 협력업체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로템

또한 “현대로템의 성과는 곧 협력업체의 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력적인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고 미래사업의 성공을 함께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현대로템은 올해 3분기 말 기준 총

4조2000억 원 규모의 일감을 협력업체에 발주했다. 이는 지난 2020년 말 2조1000억 원 대비 두 배로 늘어난 수치다. 회사는 4분기 추가발주까지만 영되면 증가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대로템 주력 제품인 K2 전

기아, 평택에 모빌리티 복합거점 개소

기아 인증중고차 센터 직영점과
PVB 익스피리언스 센터 열어

기아가 인증중고차부터 전동화 라인업, PBV까지 한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미래형 모빌리티 복합거점을 평택에 열었다. 경기도와 평택시의 적극적 투자 유치 전략이 더해지며 경기 남부 미래차 산업벨트 구축에 속도가 붙고 있다.

기아는 17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일대에서 ‘기아 인증중고차 센터 평택 직영점’과 브랜드 최초의 ‘PBV 익스피리언스 센터’ 개소식을 열고 공식 운영에 돌입했다. 약 1.9만평 규모 부지에 조성된 해당 거점은 지상 4층, 실내·외 전시장과 체험 공간을 갖춘 국내 최대급 미래형 모빌리티 공간이다.

1층 인증중고차 센터는 실내·외 1400여 대를 전시할 수 있는 대규모



기아가 인증중고차 센터 평택 직영점 및 PVB 익스피리언스 센터 개소했다.

/기아

시설로, 온라인 검색부터 실차 확인·전문 상담·전용 시승까지 구매 전 과정을 통합 제공한다. 약 800m 규모의 전용 시승 트랙에는 경사로·요철 등 실제 주행 환경을 구현해 차량 성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V 라운지, 대형 컨피규레이터, 애프터마켓 제품을 체험하는 ‘기아 샵’도 운영된다.

2층에 마련된 PBV 익스피리언스 센터는 기아의 목적기반차량(PBV) 전략을 한눈에 보여주는 첫 상설 공간이다.

/이승용 기자

제일약품 “자큐보 내년 매출 1700억 목표”

‘자큐보 비전 선포식’ 열어

제일약품은 지난 13~14일 원주 오크밸리에서 ‘2025 자큐보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자사의 핵심 전략 품목인 자큐보정의 중장기 목표와 영업·마케팅 방향성을 전사적으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영업·마케팅·학술·R&D 등 임직원 약 600여 명이 참석해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비전과 로드맵을 함께 논의했다.

특히 자큐보는 올해 700억원 매출 달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2026년 매출 목표로 1700억원을 제시하며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방향을 명확히 했다.

선포식은 자큐보정의 성공적인 출시와 강력한 시장 반응을 바탕으로 향후 시장 확대 전략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조직별 계획 공유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마케팅 브랜드 캠페인 및 시장 분석 공유, 2025년 영업 실적 리마인드 및 주요 성과 브리핑, 2026년 영업 목표 및 전략 발표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2025년 영업 리마인드 세션에서는 자큐보정 출시 이후 병원 코드 오픈·DC 승인 현황, 채널별 성과 지표 등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공유했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자큐보는 제일약품 65년 역사 속에서 만들어낸 가장 의미 있는 성과 중 하나로 회사의 미래 성장을 이끌 핵심 엔진”이라며 “부문 간 긴밀한 협업과 현장에서의 실행력이 강화된다면 자큐보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한전, ‘CES 혁신상’ 5개 부문 석권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 전환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 ‘CES 2026’을 앞두고 CES 혁신상 5개 부문을 석권했다.

한전은 17일 CES 주최기관인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로부터 ▲AI 기반 변전설비 예방진단 솔루션(SEDA) ▲하이브리드 에너지저장시스템(HESS) ▲변압기 부싱 진단장치 ▲전력설비 광학진단시스템 ▲분산 에너지 보안기술 등 총 5개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글로벌 전력유틸리티 기업 최초의 수상으로, 한전이 전력 인프라 중심에서 AI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다.

특히 수상 기술 상당수는 연구개발 단계를 벗어나 이미 현장에서 적용·운영 중이다. 전력 설비의 고장 예방, 재난·정전 리스크 최소화, 분산형 전원 확대에 따른 보안 강화 등 한전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돼 실효성과 시장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전은 송·변전망, 배전설비 등 국가 전력망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디지털 기술을 고도화해 왔다. 변전설비의 이상 징후를 조기 탐지하는 SEDA는 한전 자체 개발 알고리즘을 통해 고장 확률을 예측하는 시스템으로, 이미 주요 변전소에서 본격 운영 중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정관장, ‘UN청소년환경총회’ 후원

약 5000만원 상당 제품·기부금

정관장이 ‘2025 UN청소년환경총회’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플라스틱 저감 실천에 동참했다. 정관장은 환경단체 에코나우가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협회세계연맹(WFUNA)과 공동 주최한 이번 총회에 약 5000만 원 상당의 ‘홍삼정’ 관련 제품과 기부금을 지원했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UN청소년환경총회’는 지난 11월 15~16일 성남시에서 열렸으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청소년들이 모인 유엔 방식으로 환경의제를 논의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공



정관장이 ‘2025 UN청소년환경총회’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플라스틱 저감 실천에 동참했다.

/KGC인삼공사

식 의제는 ‘기후위기와 플라스틱 오염 종식’으로, 참가 청소년들은 각국 대표단 역할을 맡아 실천 가능한 해법을 도출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인사

◆HS화성◇승진 △토목환경사업본부 장 정의송 ◇보직변경△전략실장 최혁 △재무실장 소병국 △자금팀장 김영민 △회계팀장 천세진 △준법감사팀장 김기태 △개발영업팀장 박지식

부음

▲장재현씨 별세, 이소원씨 남편상, 장일범·장소연(삼성전자 한국총괄 마케팅 팀 부사장)씨 부친상, 윤성식씨 장인상, 지도은씨 시부상 = 16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19일 오전 9시

©M I/T, F, E



40주년 **보노보노** 특별전
in Seoul

2025. 12. 12 -
2026. 3. 29

원작자 이가라시 마키오

충무아트센터 갤러리

루왁 커피가 부드러운 이유



연 윤 열 의
푸드특독

커피 한 잔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루왁 커피(Kopi Luwak)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커피”라는 명성과 함께 사향고양이의 체내 소화기관을 통해 만들어진 커피라고 하는 흥미거리를 제공한다.

하지만 사향고양이의 배설물에서 나온다는 사실만으로 이 커피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최근 연구에서 루왁 커피의 부드럽고 독특한 풍미의 원인이 단순히 희소하거나 흥미롭기 때문이 아니라 화학적 변화에 기인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루왁 커피가 일반 커피와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사향고양이의 소화과정인 장내발효에서 발생한다. 연구에 따르면 소화기관을 거친 루왁 원두는 일반 원두에 비해 크게 두 가지 변화를 겪는다.

첫째, 쓴맛을 줄여준다. 커피의 쓴맛을 유발하는 주요 성분 중 하나는 단백질이 다. 사향고양이의 위액과 소화 효소가 원두 표면의 단백질을 일부 분해하여 단백질 함량이 낮아져 일반 커피보다 훨씬 부드럽

고 쓴맛이 덜한 특징을 갖게 된다.

둘째, 지방 함량과 독특한 향이 높아진다. 커피 생두에 함유되어 있는 지방산 분자들은 로스팅 및 추출 과정에서 분해, 산화, 에스테르화 등의 화학 반응을 거쳐 커피의 최종적인 맛과 향을 결정하게 된다.

루왁 커피 원두는 일반 원두보다 총 지방산 함량이 유의미하게 높다. 또한 특정 지방산 메틸 에스테르인 카프릴산 메틸 에스테르와 카프르산 메틸 에스테르의 함량이 일반 원두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즉, 사향고양이의 소화과정과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효소가 원두에 부드러운 유제품의 풍미와 풍부한 지방을 매개로 한 특별한 향을 입혀주는 것이다.

커피의 맛과 향을 결정 짓는 풍미 프로파일은 테루아라고 불리는 기후나 토양같은 환경적 요인뿐 아니라, 생두 내부에 축적된 특정 화학성분의 농도 차이에서 직접적으로 기인한다. 커피의 풍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인 클로로겐산(CGAs)은 커피 생두에 가장 풍부하게 존재하는 폴리페놀 화합물로 커피의 항산화 능력과 신맛, 쓴맛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분자 물질이다.

로부스타 종은 아라비카 종에 비해 클로

로겐산 함량이 약 2배 정도 많이 들어 있다. 클로로겐산은 로스팅 시 분해되어 퀴닉산과 카페산 같은 유기산을 생성하는데 이는 커피의 강한 쓴맛과 거친 산미, 그리고 바디감에 기여한다.

케냐와 에티오피아같이 고도가 높고 서늘한 기후에서 느리게 자란 아라비카는 커피 열매의 숙성을 늦춰 생두 내부에 설탕과 같은 당류와 구연산, 사과산 같은 유기산을 더 많이 축적하고 클로로겐산의 분해가 잘 제어되어 섬세하고 밝은 산미를 내는 경향이 있다.

로스팅 시 당류는 카라멜화와 메일라드 반응을 통해 단맛, 캐러멜 향, 초콜릿 향을 생성한다. 유기산은 과일처럼 밝고 깨끗한 산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케냐AA, 에티오피아 예가체프같은 고지대 아라비카 원두는 꽃향, 과일의 산미, 섬세한 단맛의 조화가 뛰어나다.

결국 커피의 원산지별 풍미 차이는 해당 지역의 기후, 토양, 가공 방식이 생두의 유전적 특성과 결합하여 클로로겐산, 당류, 유기산과 같은 핵심 분자 성분의 비율을 결정하고 이 성분들이 로스팅할때 열을 만나 풍미를 결정짓는 수많은 휘발성 화합물로 변환되면서 최종적인 풍미 프로파일로 완성되는 것이다. /푸드테크 칼럼니스트, 식품기술사

GPU는 확보, 전기는 아직



기자 수첩
차 현 정
(산업부)

공기청정기를 틀려고 하니 전자레인지가 멈추고, 전기밥솥을 작동하다 보면 TV가 꺼지는 집이 있다. 가전은 스마트해졌는데 전력 공급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AI 시대를 맞이한 한국의 모습도 비슷하다. 최근 엔비디아가 우리 정부와 국내 국내 4개 기업(삼성전자·SK그룹·현대차그룹·네이버클라우드)에 26만장의 그래픽 처리장치(GPU)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이를 돌릴 전력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

GPU 26만장(GB200 기준)을 정상 가

동할 경우 데이터센터 전체 전력 소모량은 600메가와트(MW)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신형 대형 원전인 APR1400급 원전 발전량(1400MW)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정부가 내세워온 ‘탈원전 기조’는 인프라 확충의 걸림돌로 꼽힌다. 현재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나 간헐성과 변동성, 송전망 제약 등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한 데이터센터 산업과의 간극이 커지는 모습이다.

반면 AI 패권 다툼에 한창인 미국은 가동을 중단했던 기존 원전을 재가동하고 천연가스 발전소를 적극 늘리며 전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영국은 신규 원전 건설에 나서고 있으며 탈원전 정책을 펼쳤던 독일 또한 원전 건설 필요성을 검

토하고 있다.

전력 공급망 구축의 시급성을 지적하는 기업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최고경영자) 서밋 ‘아시아 퍼시픽 LNG 커넥트’ 세션에서 “AI가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전력 수요도 폭증하고 있다”며 “이 엄청난 에너지를 어디에서 공급할 것인지 또 어떻게 신뢰할 수 있고 친환경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글로벌 과제”라고 말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소모량은 2023년 약 460테라와트시(TWh) 수준에서 2030년 800~1000TWh로 급증할 전망이다.

결국 AI 경쟁력의 핵심 요소는 인프라 구축이다. AI를 잘 만드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할 때다.

/hyeon@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1월 18일 (음 9월 29일) 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결혼은 돌이 했으나 인생은 아차피 혼자 가는 여행이다. 48년생 올바른 처신이 구설수를 예방. 60년생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 72년생 헛된 욕심이 화를 부른다. 84년생 게으름은 익숙한 일도 망친다.



소

37년생 사방이 껌껌하니 곧 새벽이 온다. 49년생 재물은 들어오지만 바로 나가야 할 돈. 61년생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차용증을 받자. 73년생 집안 경사에 기쁨이 두 배가 된다. 85년생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호랑이

38년생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법이니 더 노력. 50년생 사돈과의 왕래가 가족간 활력소. 62년생 이기적인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게 된다. 74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을. 86년생 마음먹은 일을 위해 열심히 일하자.



토끼

39년생 길 떠나려는데 신발 끈이 풀리니 잠시 지체. 51년생 뱃서든 빗을 갠다. 63년생 레일을 벗어난 기차는 폭주하기 마련이다. 75년생 강을 건넜다고 배를 소홀히 해서는 큰 낭패. 87년생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 착하게 살자.



염

40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52년생 책을 보니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64년생 부지런하면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부른다. 76년생 어디서나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88년생 내가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만.



뱀

41년생 색다른 투자는 위험할 수가. 53년생 우물을 찾았으니 두레박은 스스로 만들어 써라. 65년생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서는 한 발자국의 진보도 없다. 77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조심. 89년생 작은 구멍이 큰일을 만든다.



말

42년생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중요. 54년생 약속이 겹칠 수 있으니 반드시 메모. 66년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니 겸손해야 한다. 78년생 변화의 날이니 외모에도 좀 신경 쓰자. 90년생 명석이 깔렸으니 모든 역량을 발휘.



양

43년생 많은 사람에게 자랑할 일이 있다. 55년생 적당한 경쟁은 서로에게 득. 67년생 오늘 힘들어도 내일을 생각하면 견뎌 보자. 79년생 남의 허물을 지적하면 내 허물도 나온다. 91년생 대인관계에서 지고 이기는 것이 무슨 대수인가.



원숭이

44년생 내키지 않아도 웃는 게 좋다. 56년생 가족이라도 금전거래는 금물. 68년생 연인에게 지나친 기대는 하지 마라. 80년생 이성 약속으로 일이 손에 안 잡힌다. 92년생 말에는 각인 효과가 있으니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대로 된다.



닭

45년생 흐지부지될 수 있으니 문서로 남겨라. 57년생 다정도 병이니 지나친 간섭은 삼가라. 69년생 어려운 일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81년생 멀리서 온 친구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준다. 93년생 가족사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하도록.



개

46년생 희망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 58년생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실망마라. 70년생 상대에게 오해가 있다면 내가 먼저 풀어내라. 82년생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성실로 대하는 것이. 94년생 늦지 않았으니 후회 말고 기술을 배우자.



돼지

47년생 순풍에 돛단배 가듯이 순조로운 하루. 59년생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도 따른다. 71년생 포용하는 것이 일의 관건. 83년생 이미 해결된 것처럼 행동하면 견제를 받게 된다. 95년생 총되는 뱀피의 도움으로 계약을 무사히 체결.



김상회의四季 민족의 생명수 한강

어느 나라나 수도가 정해질 때는 반드시 고려하는 요소가 있다.“물” 인간의 몸은 70%가 물이듯이 모든 생명체를 존재하게 하는 필수 불가결의 요소는 물이다. 물이 없으면 생명은 태어날 수도, 그 생명이 유지될 수도 없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부족국가든 더 나아가 제국을 이룰 때도 그 중심부가 되는 수도는 강을 끼고 있다. 삼국시대로부터 고구려는 대동강, 신라는 낙동강을 백제는 수도를 이전할 때도 반드시 한강으로부터 영산강과 금강 등 강 근처에 도읍을 정했었고 우리 민족의 시조로 일컬어지는 단군 역시 신단수 아래 도읍을 정했다. 그 신단수는 태백산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한강의 발원지로 알려진 검룡소 역시 태백산에 있으니 이름은 같고 위치한 지역은 다를지도 모르나, 가장 중심이 되고 으름이 됨의 접두어로 붙이는 것이 클 태(太)인 것을 고려하자면 그 의미가 자못 함축적이다.

검룡소와 더불어 또 하나 한강의 시원지로 알려진 곳, 오대산 서대 장령봉에 있는 우통수(于筒水)가 한민족의 생명수인 한강으로 흘러가 민족의 생명수가 된다. 현재 공식적으로는 태백의 검룡소가 남한강에서 가장 먼 발원지로 알려져 있으나 “오대산 수정암 옆에 물이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데, 그 색과 맛이 보통과 다르고 무게 또한 그러하여 우통수라 한다. 우통수는 금강연이 되고 한수(한강)의 근원이 된다.”라고 세종실록에서는 우통수가 한강의 근원임을 기록했다. 우통수 기록은 더 앞선 기록인 삼국유사에서도 보인다. 그러니 북한강과 남한강 모두 태백을 시원으로 하여 양수리 두물머리에서 만나 한강이 되어 한반도의 가장 중심이 되는 생명수임에는 이견이 없다. 천고마비의 상달 10월에 한강수의 시원을 찾아가 몸과 마음을 살리는 생명수를 마셔볼 일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종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9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97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할힘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각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레코드를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1

4

7

2

8

3

5

1

8

4

2

9

2

8

7

6

4

5

6

5

7

4

2

9

9

8

6

8

9

2

7

1

1

7

2

6

9

1

8

9

8

9

2

8

1

8

7

9

6

2

8

9

9

2

6

1

8

8

7

9

1

2

6

7

9

9

8

1

8

9

2

7

1

8

9

8

9

2

6

1

8

8

7

9

1

2

6

7

9

9

8

1

8

9

2

7

1

8

9

8

9

2

6

1

8

8

7

9

1

2

6

7

9

9

8

1

8

9

2

7

1

8

9

8

9

2

6

1

8

8

7

9

1

2

6

7

9

9

8

1

8

9

2

7

1

8

9

8

9

2

6

1

8

8

7

9

1

2

6

7

9

9

8

1

8

9

2

7

1

8

9

8

9

2

6

1

8

8

7

9

1

2

6

7

9

9

8

1

8

9

2

7

1

8

9

8

9

2

6

1

8

8

7

9

1

2

6

7

9

9

8

1

8

9

2

7

1

8

9

8

9

2

6

1

8

8

7

9

1

2

6

7

9

9

8

1

8

9

2

7

1

8

9

8

9

2

6

1

8

8

7

9

1

2

6

7

9

9

8

1

8

9

2

7

1

8

9

8

9

2

6

1

8

8

7

9

1

2

6

7

9

9

8

1

8

9

2

7

1

8

9

8

9

2

6

1

8

8

7

9

1

2

6

7

9

9

8

1

8

9

2

7

1

8

9

8

9

2

6

1

8

8

7

9

1

2

6

7

9

9

8

1

8

9

2

7

1

8

9

8

9

2

6

1

8

8

7

9

1

2

6

7

9

9

8

1

8

9

2

7

1

8

9

8

9

2

6

1

8

8

7

9

1

2

6

7

9

9

8

1

8

9

2

7

1

8

9

8

9

2

6

1

8

8

7

9

1

2

6

7

9

9

8

1

8

9

2

7

1

8

9

8

9

2

6

1

8

8

7

9

1

2

6

7

9

9

8

1

8

9

2

7

1

8

9

8

9

2

6

1

8

8

7

9

1

2

6

7

9

9

8

1

8

9

2

7

1

8

9

8

9

2

6

1

8

8

7

9

1

2

6

7

9

9

8

1

8

9

2

7

1

8

9

8

9

2

6

1

8

8

7

9

1

2

6

7

9

9

8

1

8

9

2

7

1

8

9

8

9

2

6

1

8

8

7

9

1

2

6

7

9

9

8

1

8

9

2

7

1

8

9

8

9

2

6

1

8

8

7

9

1

2

6

7

9

9

8

1

8

9

2

7

1

8

9

8

9

2

6

1

8

8

7

9

1

2

6

7

9

9

8

1

8

9

2

7

1

8

9

8

9

2

6

1

8

8

7

9

1

2

6

7

9

9

8

1

8

9

2

7

1

8

9

8

9

2

6

1

8

8

7

9

1

2

6

7

9

9

8

1

8

9

2

7

1

8

9

8

9

2

6

1

8

8

7

9

1

2

6

7

9

9

8

1

8

9

2

7

1

8

9

8

9

2

6

1

8

8

7

9

1

2

6

7

9

9

8

1

8

9

2

7

1

8

9

8

9

2

6

1

8

8

7

9

1

2

6

7

9

9

8

1

8

9

2

7

1

8

9

8

9

2

6

1

8

8

7

9

1

2

6

7

9

9

8

1

8

9

2

7

1

8

9

8

9

2

6

1

8

8

7

9

1

2

6

7

9

9

8

1

8

9

2

7

1

8

9

8

9

2

6

1

8

8

7

9

1

2

6

7

9

9

8

1

8

9

2

7

1

8

9

8

9

2

6

1

8

8

7

9

1

2

6

7

9

9

8

1

8

9

2

7

1

8

9

8

9

2

6

1

8

8

7

9

1

2

6

7

9

9

8

1

8

9

2

7

1

8

9

8

9

2

6

1

8

8

7

9

1

2

6

7

9

9

8

1

8

9

2

7

1

8

9

8

9

2

6

1

8

8

7

9

1

2

6

7

9

9

8

1

8

9

2

7

1

8

9

8

9

2

6

1

8

8

7

9

1

2

6

7

9

9

8

1

8

9

2

7

1

8

9

8

9

2

6

1

8

8

7

9

1

2

6

7

9

9

8

1

8

9

2

7

1

8

9

8

9

2

6

1

8

8

7

9

1

2

6

7

9

9

8

1

8

9

2

7

1

8

9

8

9

2

6

1

8

8

7

9

1

2

6

7

9

9

8

1

8

9

2

7

1

8

9

8

9

2

6

1

8

8

7

9

1

2

6

7

9

9

8

1

8

9

2

7

1

8

9

8

9

2

6

1

8

8

7

9

1

2

6

7

9

9

8

1

8

9

2

7

1

8

9

8

9

2

6

1

8

8

7

9

1

2

6

7

9

9

8

1

8

9

2

7

1

8

9

8

9

2

6

1

8

8

7

9

바이오·로봇 분야 등 1209억 투입 국가전략기술 학사급 인재 키운다

교육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지원
희망대학 분야별 50명 이상 목표
교육과정·교원 등 체계 마련해야

정부가 바이오·로봇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학사급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의 교육과정 혁신, 산학협력 강화, 우수교원 확보까지 패키지형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대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한국산업기술평화지원(원장 민병주)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 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특성화대학 지정을 희망하는 대학이 준비할 수 있도록 선정 규모와 추진 방향을 정부안 기준으로 먼저 공개한 것으로, 향후 국회 예산안 확정을 반영해 본 공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첨단산업 분야의 혁신을 이끌 학사급 전문 인재와 석·박사급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교육부는 ▲기초과학·기업 협업 교과목 확대 ▲우수 교원 확보 및 교육·실습 환경 조성 ▲탄력적인 학사·교원 인사제도 운영을 지원해 대학의 첨단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2025년에는 반도체 20개 사업단(30개교), 이차전지 5개교, 바이오 3개교에 총 1167억원을 지원해 분야별

〈첨단산업 특성화 인재양성 대학모델 집중 육성 내용〉

/자료=교육부

학과·전공 등 추진체계 구축	·대학별 인재양성 목표 설정(분야, 규모)
	·학과·전공 운영 등 이행계획 수립, 사업추진체계 구축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기초 교육 강화 및 다양한 학문 간 융복합 강화
	·기업 참여 및 협업을 통한 교육과정 개발, 운영
교원, 시설 등 인프라 투자	·현장경험, 전문성 높은 우수교원 확보 및 활용
	·첨단분야 교육·연수, 실습을 위한 환경 구축
탄력적 학사 운영	·학교 밖 일·학습 경험 학점 인정 확대
	·교원인사제도 운영개선(산학협력, 혁신적 수업 독려)
취업 및 진학 지원	·첨단분야기업 취업 연계 지원
	·우수학생 유치 및 대학원 진학 등 연구역량 강화

특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2026년에는 지난 5월 고시 개정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새롭게 포함된 ‘로봇 분야’를 신설해 바이오 2개교, 로봇 3개교 등 총 1209억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한다.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먼저 분야별 연간 최소 50명 이상의 인재 양성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교육과정·교원·기업 협업 등 종합적인 사업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산업계 수요에 맞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공학 기초교육과 심화과정을 포함한 산업계 진화형 교육과정 확대와 특성화 분야 연계 교육과정 개발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실험·실습 기자재 집적화와 우수교원 확보 등 교육 기반 인프라 구축, 학점 연계형 일학습 프로그램·산학협력 실적 인정 확대 등 제도 개선, 진

학·취업 상담 강화와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 등 체계적인 진로 지원도 준비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교육부는 특성화대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 규제개선 체계 운영 ▲인재양성 지원 협업센터 운영 ▲우수사례 공유 및 성과 확산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대학 특성화 모델을 구축해 첨단산업 핵심 인재 양성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인재 양성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자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라며 “앞으로도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등 첨단 분야 특성화대학을 적극 지원해 취업과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동시에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AI 모의면접’ 등 수험생 입시설계 도와

서울시 ‘서울런’서 대입지원 프로그램
전문가 투입 ‘1대1 정시컨설팅’ 진행

2026학년도 수능이 마무리되면서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정시 전략 수립과 수시 논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 대비가 동시에 요구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이에 서울시는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을 통해 AI 기술과 입시 전문가의 노하우를 결합한 맞춤형 대입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수능 직후 가채점 분석부터 정시 최종 지원, 대학별 고사까지 이어지는 입시 전 과정에서 취약계층 수험생들이 겪을 수 있는 정보 격차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최신 분석부터 20년 경력 전문가의 1대1 밀착 상담, 수시 마지막 관문인 논술 지원까지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대입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

먼저, 이달 말 서울런 회원 중 수험생(2009년생부터) 500명을 대상으로 ‘AI 진로·진학 코치’를 신규 도입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이 수능 가채점 성적을 입력하면 AI가 1220만

건의 합격·불합격 데이터와 1553개 고교 정보를 분석해 정시 합격 가능 대학을 예측하고, 학생부 기반 모의 면접까지 한 번에 지원한다.

또한 학생부를 기반으로 희망 대학별 ‘AI 모의 면접’, 희망 전공과 연계된 ‘탐구 주제’ 추천 등 입체적인 입시 설계를 돕는다.

AI 진로·진학 코치의 자세한 안내와 참여 정보는 서울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능 성적 발표 이후 정시 지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1대1 정시컨설팅’도 진행한다. 20년 이상 경력의 현직 진로·진학상담 교사, 대입상담센터 전문 인력 등 컨설턴트단이 수험생의 성적·적성·진로를 종합 분석해 지원 가능 대학 리스트를 제공하고, 교차·적정·소신 지원 등 최적의 정시 지원 포트폴리오를 설계한다.

신청 대상은 올해 수능에 응시한 서울런 회원이며, 11월 17일 오후 4시부터 12월 1일까지 서울런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70명을 모집한다. 상담은 12월 8일부터 연말까지(주말/공휴일 제외)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이현진 기자

노인돌봄 ‘파주시은빛사랑채’ 우수기관 선정

파주시, 맞춤형 사례관리 등 높은점수

파주시가파주시노인맞춤돌봄서비스수행기관인파주시은빛사랑채가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합평가 시범사업’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3년 이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운영한 전국 60개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운영관리 ▲서비스 제공 품질 ▲사례관리 전문성 ▲현장 대응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파주시은빛사랑채는 건강·돌봄 요구 기반의 맞춤형 사례관리, 생활지원사 교육 및 관리체계, 지역사회 복지·의료기관과의 연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도 내에서는 단 5개 시군만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파주시의 돌봄 정책 수준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일반·중점·퇴원환자군으로 재편하고, 전국 1만 명 규모의 퇴원환자 단기 집중 돌봄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분야를 기존 4개에서 5개로 확대하고, 전담 사회복지사 1인당 담당 인원 기준을 조정하는 등 전달 체계 전반의 변화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파주시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행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의견을 중앙정부에 적극 제출할 계획이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서울시교육청, 체대 입시 학생 집중지원

오늘 체육계열 대학 정시 진학 설명회
학생·학부모 등 700여명 참여할 듯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체육계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정시 설명회와 실기 모의평가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수능 직후부터 정시 전략 수립과 실기 준비가 동시에 요구되는 시기를 고려해, 공교육 기반의 체계적인 체육계열 진학지도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서울고등학교에서 ‘2025년 체육계열 대학 정시 진학 설명회’를 연다. 지난 7월 열린 수시 설명회에는 1000여 명이 참석한 바 있으며, 이번 정시 설명회에도 약 700명의 학생·학부모·교사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명회에서는 체육계열 입학 전형에 대한 전체 구조와 최신 경향을 안내하고, 현직 교사들이 연구·분석한 대학별



지난 6월 개최된 서울미래체육인재한마당 모습. /서울시교육청

입학요강과 전형 결과를 바탕으로 합격 전략을 제시한다. 주요 체육계열 대학 재학생들이 참여해 학교별 상담 부스를 운영하며, 실제 입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멘토링도 제공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체육계열 진학자료를 모두 ‘서울학교체육’ 포털에서 공개하고 있다. 실기고사 모의평가 기록과 합격 사례 등을 활용해 학생 개인의 진학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것으

로, 체육계열 입시 정보가 공교육 중심으로 이동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어 20일에는 서울시교육청학생체육관에서 ‘2025학년도 하반기 서울미래체육인재한마당’을 개최한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두 차례 운영하는 공교육 주관 실기고사 모의평가로, 실제 시험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전 감각을 점검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이번 하반기 한마당에는 고등학생 850명이 참가해 자신의 실기 역량을 살펴볼 예정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는 전문적인 진학지도 역량을 갖춘 체육 교사들이 많다”며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교육 중심의 체대입시 지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학생들이 사교육비 부담 없이 학교 안에서 체육계열 대학 진학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테슬라, 미국 생산 차량 ‘노 차이나’ 선언…미·중 갈등 속 공급망 대전환
▲日GDP 6분기 만에 감소…다카이치 ‘경기 부양’ 명분 강화 /사진 뉴시스

▲트럼프, 8월말 이후 인텔 등 최소 1200억원대 채권 사들여
▲美, 이탈리아산 파스타에 관세 추가 검토…최고 107% 가능성에 업체 긴장

▲싱가포르 PDG, 한국에 첫 데이터센터 착공…1조원 투자
▲대만, 美와 ‘환율 조작 불가’ 합의…대만달러 절상 전망



온누리상품권
본래 취지 강화
고소득 업종 제한
08



김포족 매년 증가
수출도 꾸준히 확대
'김치' 효자상품 부상
L1



초부유층부터 연금시장까지 석권... 'WM명가' 재입증

투자의 즐거움, 금융 넘어 삶으로

삼성증권

자산관리(WM) 패러다임은 '투자'에서 '가치 보존과 승계'로 확장되고 있다. 투자란 단순한 수익 창출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는 관리의 전략이 된 것이다. 삼성증권이 자산관리 명가로 자리매김한 이유기도 하다. 투자 솔루션의 노하우가 결집된 인프라, 상품 솔루션 공급 능력, 컨설팅 역량을 갖춘 프라이빗뱅크(PB)와 비대면 상담 조직까지 금융투자자의 핵심 경쟁력을 고루 갖추고 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삼성증권의 예탁자산 30억원 이상 초고액자산가 고객은 업계 최초로 5449명을 넘어섰다. 2020년 말 대비 91% 증가하면서 초고액자산가들이 먼저 찾는 WM명가임을 입증했다. 지난 7월 말 기준 리테일 예탁자산 총 규모도 350조원을 돌파했다.

유정화삼성증권SNI·법인전략담당상무는 "예탁자산 30억원이상 고객 5000명 달성은 고객이 보내주신 신뢰의 상징"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대한민국 대표 증권사로서 업계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2009년 새로운 자산관리 브랜드 POP(Platform Of Private banking Service)를 대표 브랜드로 정립했다. 뒤이어 2010년에는 업계 최초로 초고액자산가 전담 브랜드인 'SNI(Success & Investment)'를 론칭했으며, 지난해 1월에는 국내 최초 패밀리오피스 전담 지점인 'SNI 패밀리오피스센터'를 신설하면서 변화하는 자본시장 내 발걸음을 놓치지 않고 있다.

같은 기간 삼성증권 패밀리오피스 고객



삼성증권 전경



(왼쪽부터)가브리엘 림(Gabriel Lim) 세비오라 그룹(Seviora Holdings) 대표와 박종문 삼성증권 사장, 추엔야우(En Yaw Chue) 아젤리아 자산운용 최고경영자(CEO)·최고투자책임자(CIO)가 지난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증권

은 150가문, 총 자산은 43조원을 돌파해 가문 평균자산은 287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삼성증권이 2020년 6월 업계 최초로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를 론칭한 지 불과 5년 만의 성과다.

유 상무는 "삼성증권이 업계 최초로 선보인 초고액자산가 대상 'SNI' 브랜드를 통해 축적해 온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내 초고액자산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삼성증권 패밀리오피스는 투자 자산 1000억원 이상 한국 대표 가문들을 엄선해 단순자산관리를 넘어가문의 자산 및 승계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것이 차별화 포인트"라고 말했다.

20년 노하우, 30억 고객 5449명
초고액자산가 2020년 대비 91% ↑
패밀리오피스 150가문 총자산 43조
블랙스톤 펀드 1억1000弗 판매 성공

삼성증권은 전통 부유층, 신흥 부유층, 패밀리오피스를 포함한 초고액자산가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 경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있다. 젊은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 진입장벽을 낮추고, 디지털자산관리본부가 상담부터 업무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초고액 자산관리의 핵심 경쟁력으로는 글로벌 탭터에 운용사와의 독점적 네트워크가 꼽힌다. 대표적인 사례는 올해 상반기 판매했던 국내 최초 리테일 블랙스톤 사모 대체펀드 투자로, 리테일에서만 1억1000불의 자금을 모집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이 중 패밀리오피스 고객의 투자 금액이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삼성증권은 블랙스톤 외에도 에이리스(Ares), EQT, 슈로더(Scroders), 골럽(Golub), 콜러(Coller) 등 세계적인 사모대체투자 운용사들과 직접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토탈 솔루션 구조도 강점이다. 삼성증권의 투자은행(IB)

은 기업 오너 고객을 대상으로 기업공개(PO), 인수·합병(M&A), 기업 승계 컨설팅 등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리서치센터에서는 전문 인력을 동원해 일대일 전담 컨설팅을 제공한다. 세무, 법무, 부동산 관련 부문에서도 국내 최상위 법무법인과 글로벌 부동산 법인과의 전략적 제휴 네트워크를 형성해 왔다. 기업 승계, 유언 신탁, 세무·법률 자문 등 복잡한 법적 이슈와 해외 투자, 상업용 부동산, 프라임 자산 발굴 등의 컨설팅 서비스까지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올해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인 삼성증권의 자문플랫폼도 강점 중 하나다. 삼성증권은 2018년 자문플랫폼 오픈에 이어 2025년 1월에 투자일임 플랫폼을 오픈해 현재 86개사(자문 56·일임 30)가 입점했으며, 지난달 말 기준 총 1조5000억원 이상의 고객 자산을 유치하고 있다.

박경희 삼성증권 WM부문장 부사장은 "국내 투자자산 1000억원 이상 자산가들의 투자 눈높이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를 요구하고 있다"며 "삼성증권 패밀리오피스는 고객의 자산뿐만 아니라 가문 전체의 미래 가치까지 함께 설계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牛步萬里'(우보만리) 삼성증권, 퇴직연금 시장 4위에서 2위로 '우뚱'

삼성증권의 올해 3분기 말 퇴직연금 적립액은 18조8656억원으로, 전년 동기 14조1110억원 대비 33.7% 증가했다. 전체 증권사 중 퇴직연금 적립액 4위였던 삼성증권은 현대차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제치고 단숨에 2위로 뛰어올랐다. 같은 기간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적립액이 각각 48.9%, 44.2%씩 늘어난 영향이다. 확정급여형(DB)은 2.0% 수준으로 소폭 늘었다.

삼성증권의 3분기 기준 퇴직연금 수익률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기준 삼성증권의 3분기 DC 원리금(비보장) 수익률은 19.02%, IRP(비보장)는 16.91%로 모두 업계 상위권을 기록했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퇴직연금본부를 디지털부문으로 이관하면서 디지털 마케팅과의 연계를 강화했다. 부문 명칭도 '디지털&연금부문'으로 변경했다.

우선적으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앱팝(mPOP)을 통해 ▲고객 맞춤형 상품추천, 매매·리밸런싱, 성과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 '퇴직연금 S톡' ▲서류 작성없이 간단한 정보만으로 IRP 계좌 개설이 가능한 '삼성증권 3분 IRP'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계좌에서 상장지수펀드(ETF)를 자동으로 적립할 수 있는 'ETF 모으기' 서비스 등을 선보였다. 지난 5월에는 퇴직연금 전용 로보어드바이저(RA)를 도입해 맞춤형 포트폴리오 추천 서비스를 강화했다.

퇴직연금 순위 4위서 2위로 상승
총 적립액 18조8656억으로 확대
DC 48.9%·IRP 44.2% 증가세
MTS 기반 디지털 연금 서비스 강화

더불어 퇴직연금 고객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업계 최초로 별도의 연금센터를 신설했다. 현재 서울과 수원, 대구에서 3곳의 센터를 운영 중이며 해당 연금센터에서는 PB 경력 10년 이상의 숙련된 인력이 전문화된 연금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증권 연금센터는 연금 가입자 대상의 상담뿐 아니라 퇴직연금 도입 법인에 대한 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약 200여건이 넘는 세미나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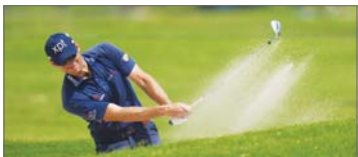
이성주 삼성증권 연금본부장 상무는 "퇴직연금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삼성증권은 우수한 연금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의 든든한 연금파트너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한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삼성증권 예탁자산 30억 이상 고객 증가 추이 그래프

메트로 한줄뉴스



▲서틀룩 '최강 듀오' 김원호·서승재, 일본 마스터스 우승
▲샹크, PGA 버뮤다 챔피언십 우승... 243번째 출전 만에 첫 승 /사진 뉴시스

▲여자축구국가대표 신상우호, 유럽 원정 26인 소집... 이금민 센추리클럽 도전
▲애플TV, 내년부터 추가금 없이 손흥민·메시 뛰는 MLS 서비스

▲웨이브, '위키드 원더풀나이트콘서트' 19일 독점 공개
▲이진경, 골프존 롯데렌터카 WG투어 7차 대회 우승